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통상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0세기 현대의 스님들이 1의 1발만으로 살 수 있을까. 분명 아니다. 평생을 1의 1발로 수행과 포교에 나섰던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출가제자들이지만 달라진 삶의 환경에 달라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성불을 향한 원력이 녹슬고 흩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탱해야 한다. 병마와 늙음이 찾아 왔을지라도 피안에 이르도록 배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의료수혜와 노후안정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출가수행자들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 정신을 살필 일이다. 〈편집자주〉

비구가 병들었을 때는…

비구가 병들었을 경우에는 변소에 가까운 방을 배정해 주며 목욕시킬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욕구(浴具)를 갖추어 주고 때가 아니라도 미음이 먹고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주며 방중이라도 모여서 가르침을 설하며 시벽에는 병자가 먹을 식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오분율〉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옷과 밥과 거처와 약을 공양하는 재가의 사람들은 그대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대들도 역시 처음이나 끝이 아름답고 청정한 교법을 설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출가와 재가는 이와 같이 서로 의지하여 서로 돕고 번뇌를 넘어서 고통의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 〈마하제파경〉

그대들은 여러가지 생활물자의 부족때문에 계율을 어기고 여러가지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음식 의복 와구 사택 수레 보배 여러가지 꽃 향수 의약 등 많은 생활물자와 도구를 준다. 〈무량수경〉

선남자여 나는 온갖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알고 있어서 풍황 담열 귀매 충독과 내지는 수화(水火)의 상해… 이런 모든 병을 내가 다 고쳐준다. 온갖 병자가 나 있는 곳에 오면 난 그들을 다 치료해 낫게 하고 깨끗한 더운 물로 그 몸을 목욕시킨다. 그리고 향화(香華) 영락 명의상복(名衣上服) 등 갖가지 치장하는 물건을 보시하며 온갖 음식과 재물을 다 충족시켜 주어서 모자람이 없게 한다. 〈화엄경〉

여래가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불행에 빠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니 누구건 스님들과 모든 가난한 자, 고독한 자, 노인 등을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해서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점차 공덕이 차면 마땅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법구비유경〉

지금부터는 마땅히 병자를 돌보아 주어라. 만약 나를 위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병자를 위하는 것이 좋다. 〈사분율〉

관련기사 2면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기단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분황사 석탑(국보 제 30호).



◇유적층 발견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소금강산 앞 아파트 부지, 12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이다.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재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에 설정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지난 1일 제123회 정기종회를 개회, 의장에 설정스님을 재선하고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에 법등스님 청화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차주상보〉

경주 성지 '훼손 몸살'

분황사 석탑 차량진동 균열
백률사 12층아파트 신축
삼랑사지 4차선 도로 건설

신라불교의 성지 경주의 불교문화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기단과 탑신부에 균열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백률사와 삼랑사지도 고층아파트와 도로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분황사 주지 종수스님은 지난 10월31일 "일주문 앞의 차량진동으로 분황사 석탑의 기단부분 벽돌 1백여개가 반으로 쪼개져 있으며, 탑신 서쪽부분도 틈새가 벌어져 있다"며 "시급한 보수와 함께 일주문 앞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에대해 지난해 6월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균열과 탑신의 틈새를 확인했으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분황사 앞 도로의 대형차량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백률사는 이차돈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528년(법흥왕 15년)에 창건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그러나 최근 백률사에서 직선거리로 70여m 떨어진 곳에 12층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9월 한달 동안 아파트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조사 결과 신라시대에 축조된 100여m의 담장기초석과 유적층이 발견되었다"며 "이곳이 이차돈의 죽음과 관련된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주시 성건동 삼랑사지는 신라 신문왕의 국사였던 경흥스님이 머물면서 저술활동을 했던 곳으로 경주시가 4차선 도로를 건설중이다. 삼랑사지에는 현재 도로예정지에서 30m 떨어진 곳에 보물 제127호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남아있어 도로 건설이 강행될 경우 사지 전체가 도로로 묻히게 된다.

이에대해 경주시문화과는 "문화재위원들의 현장조사 결과 문화재훼손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군불교 진흥회 사단법인 인가

법당건립 · 군법사 해외연수 · 기부금 양성화등 추진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지난 10월29일 숙원사업이던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97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군불교진흥회는 앞으로 기부금을 양성화할 수 있게 됐으며, 수익사업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군불교진흥회는 97년도에 10명의 군법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소홀했던 군승법사 및 군종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후원회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한 5개소 이상의 군법당건립을 지원하고, 군법당이나 법사 미파견지역에 비디오테입과 불서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현안 의견 수렴 문체부-교계 간담회

문체부는 지난 10월29일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스님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문 문체부차관은 국민화합에 불교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교계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융종총무원장 배일공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비롯 각종단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서울대회 결산 종단협 정기이사회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0월30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결산했다.

이날 종단협은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대회 3차대회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를 97년 3월중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총지종이 추진하고있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12일 'OECD가입과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했다.

제2회 신행수기 모집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신행수기 공모는 자신의 신행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삼보에 귀의하여 불자의 길을 걸으며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며 불심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 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넓혀 갈 이 기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선작은 본지에 연재됩니다.

△원고분량: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공모대상: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1996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1997년 본지 신년호
△접 수: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현재 4차(부산) · 5차(광주) 접수중)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 (부산 · 광주 각 30명)
◇교육 내용
· windows 기본
· 인터넷 기본, 중급, 고급
◇교육 일정
· 4차(부산):11월9~12일
· 5차(광주):11월23~26일
◇교육 장소
· 삼보컴퓨터 교육센타
-부산 : 동구 초량 3동 1163-2 부산 삼보컴퓨터 사옥 2층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문의 :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협찬 : 삼보컴퓨터

현대불교신문사

'수미산' 현장 간월암 문학기행 11면
'빈곤추방 헌신' 아리야라트네박사' 3면
불교교양대 전문화 바람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기 간 : 96. 11. 1 ~ 97. 2. 20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로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사 설

불교문화운동의 부흥

작금에는 다양한 불교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 화순군과 운주사에서는 '화순운주대축제'를 11월초 열었고, 도선사는 청담스님 25주기를 맞아 '청담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한다. 총무원은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새로이 자각하고 그동안 통합운영되어 왔던 문화사회부를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 운영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내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해 놓았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코드로 형성된 것이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유교는 그 의례적 합리적 지향 때문에 신화적 상징적 공간이 극히 축소되어 있다. 유형물로는 서원과 향교, 제각 등에 국한될 뿐이고, 그나마 그 공간을 살아있게 하고 의미부여하는 집단, 즉 사대부 계층의 무형적 전승이 거의 단절됐다. 이래저래 유교문화유산의 피폐는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 유산의 주종은 불교적인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특히 불교인들은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금 불교유산은 안팎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가야산의 사태와 유사한 도전이 끊임없이 돌출되고 이어질 것이다. 그 도전에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위기는 불교 내부에 있다. 문화는 지속적 자양과 보호 관리가 없으면 쇠퇴하고 소멸하는 유기체이다.

내부의 위기란 바로 불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창의와 창조의 역량의 고갈이다.

유형적인 것만 해도 그렇다. 세월의 풍파와 더불어 절간은 자꾸 낡아가고 허물어진다. 전국적으로 사찰마다 새로운 불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완연히 어설프고 혼이 빠져 있다. 통일신라 불교의 장중함과 세련미는 고려에 들어 점점 형식화하다가, 조선조에 내려오면 퇴화의 기미를 보인다.

그나마도 다행이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아주지 못할 것들이 많다. 황룡사를 짓고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한 기백과 신심을 기대할 수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미학적 고려가 결여된 조악한 조형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불교문화는 가시적 조형물의 상징적 공간을 근본적 토대로 하고 있다. 무형의 교리와 의식 못지 않게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창조하는 일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 단적으로 장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인간문화재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월 20~30만원의 보조비로 어떻게 혼을 건 장인들을 키울 수 있겠는가. 정부와 시민들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다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불교는 유형과 무형의 교감과 협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이다. 유형을 소홀히 하고 무형만을 강조해서는 불교는 생명력을 잃는다. 불교문화운동의 근본 또한 이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문화적 이벤트도 중요하고, 거창한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불교문화운동은 쇠락해가는 불교적 공감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촉구한다. 그를 위해 우선 불교적 상징물의 전문적 장인을 길러내고 우대하여 그들의 창의력과 신심을 불사에 공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열린마당

승가 복지

지난 8월27일 조계종 총무원은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출가수행자의 노후복지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에따른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2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 주최로 승가복지를 위한 좌담회가 개최되는 등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됐다.

승가복지사업 추진현황과 파급효과 및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승가복지가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 10월28일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승가복지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11월말로 접수 마감…선정위 구성키로
예산확보 · 수혜대상 확대 등 과제산적

조계종 추진현황

조계종인 추진중인 승가복지사업의 내용은 크게 연금(노후생활보장) 혜택과 의료 및 재해보장이다. 부수적으로 학자금 융자와 종책사업을 위한 대출을 가능토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종단에서 세납 41~50세 스님(신청예상 승려 1천3백50명)을 대상으로 매월 4만5천원을 불입하고 60세부터 20년간 매월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또 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2천2백40명) 매월1만원씩 납입, 69세까지 재해 질병시 보상금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총무원은 97년도 승가복지사업 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하고 연금은 은행에, 보장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 예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11월 종회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기관을 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가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월30일 종무회의에서 '승려연금 및 보험실시 규정'을 입법예고 하고 연금 및 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연금 및 보장보험의 실시는 출가자들을 수행에 전념하도록 보장하고, 소임자들에게는 사심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어 불신의 골이 깊은 종단풍토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노후복지시행으로 궁극적인 승가복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교복지전문가들은 승가복지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시행대상의 확대는 물론, 특별예산 확보 및 현실성 있는 연금책정 등 세부적인 수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도 관련예산은 우선 조치가 필요한 스님들에 대한 공적부조, 비교적 부담이 적은 보장보험을 위한 기금으로 한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총무원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세납 40세부터 64세까지의 모든 스님들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도필선 기자

권경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강사〉

수행 · 포교 전념환경 제도적장치 필요

초기 승가공동체에서는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동생활과 분배의 수도공동체로서 최소한의 소비생활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 사회적 변화속에서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과 활동보장을 위해 생활 및 의료보장, 노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불교승단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의 미비, 경제적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문중이나 후원신도가 없는 경우 생활상의 곤란, 교육을 위한 학비조달의 문제, 질병이나 상해시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전용의료시설의 미비,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과 장의시설 미비 등 제반문제들을 종단차원에서 해결하기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차이, 복지대상판별의 기준마련, 재원의 한계, 복지정책수립의 우선순위 마련 등이다.

이번 조계종의 승가복지 시행발표는 불교계가 대내적으로는 승가복지가, 대외적으로는 불교사회복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불교의 현대화 · 사회화란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학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노후보장보다 의료복지정책 급선무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동감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마련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려복지는 사찰분담금 확대, 운영기금 활용의 노하우부족 등 종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돼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다른 종교의 예

복지기금 공제회비·기부금등 통해 조성
퇴직후 생활비 등 월 150만원 교구 지원

천주교의 경우 철저하게 교당 및 교구의 틀속에서 운영된다. 교당에서 신부들에게 매월 생활비와 성목활동비를 지급,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의 대상으로 수익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생활비와 성목활동비에 대한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천주교는 성직자들의 복지기금은 신부들이 매월 공제회비로 납부하는 1만원과 신부를 위한 신도들의 기부금, 교황청의 보조금, 기금의 수익이자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이 복지기금은 (서울교구 사례)신부가 입원 · 수술 또는 진료받을 때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를 부담하는데 쓰여진다. 또 2년에 한번 전체적인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본인의 청원에 따라 퇴직후 매월 30만원과 희망아파트 구입 및 생활비, 가정부임금 등 월 150만원 정도를 교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복지기금은 교구회계와 별도조직인 사제공제회(회장 신부)에서 운영하며, 관리는 교구 경리과에서 대행한다. 기금은 수익성 높은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만약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구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기타신도 및 사제 특별 기부금을 편입 운영하고 있다.

현대만평

박구원



더욱 전문화된 모습으로…

목어

법장스님의 오계

법장스님은 덕숭산 수덕사 주지스님이다. 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이다. 스님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라고 신장을 내놓았다. 안구등 전신을 사후기증 했다. 자신을 다 내놓고 사는 법장스님. 스님에게는 스스로 정한 몇가지 내규가 있다.

스님은 통장을 갖지 않는다.

"통장을 갖고 있어 돈 모으는 재미를 부치게 되면 이웃을 위해 쉽게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법사비 · 강의료 등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을 새가 없다. 필요로 하는 인연이 생기면 바로 쓰기 때문이다.

수덕사는 매월 차등보시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승랍 20년 스님에게는 20만원, 15년은 15만원, 10년은 10만원 식으로, 법장스님은 20여 사중스님들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처럼 내규를 정해놓고 절살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만큼 대중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도 엄하다.

① 새벽예불에 빠지지 말것 ②매일 30분씩 정진할 것 ③ 도량청소에 꼭 나올것 ④ 대중공양을 할 것 ⑤ 사하촌에서 일정거리지 말것. 수덕사 스님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장스님의 오계'다. 마치 백장 청규처럼.

'법장스님의 오계'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다. "게으름은 온갖 악의 근본이다.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라"고 당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보면 스님들이 왜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적어도 매일 30분씩 선정에 들어야 하는지 그 답이 자명해진다.

도량청소는 '함께하는' 운력이지만 마음까지 쓸고 닦는다. 대중공양은 감사와 어울림 그리고 때를 지키는 수행이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독살이를 금한다.

수덕사에는 경허 · 만공스님으로 이어지는 덕숭가풍이 있다. 이를테면 술을 곡차로 마실만큼 툭 터진 경지다. 그런데 법장스님은 가풍을 잘못 이해하여 막행막식하거나, 세속물에 법복이 얼룩질까 염려하여 스님들의 사하촌 행보를 경계하고 있다. 몸가짐을 청정히 하자는 것이다. 법장스님의 오계가 귀에 번쩍 뜨이고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게으름은 몸의 '때'

게으름은 몸의 '때'와 같은 것,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
(숫타니파타)

협찬 조계사
주지 현근
TEL.(02)720-1390

BBS

방송개시 오전 11시

11月11日 불교대구방송 개국

10月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 말씀을 FM94.5MHz라디오로 만나십시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대구방송이 대구·경북 불자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구·경북지역의 새로운 불교문화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보도, 음악, 교양, 포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개 국 식:11월11일 오전 11시
불교대구방송(진각빌딩 8층)
■축하리셉션:11월11일 오후 7시
대구프린스호텔 리젠시홀

불교대구방송에서 불사의 원력으로 함께 일할 스님을 모십니다

방송업무 및 제작 편성 등 다양한 업무에 함께 공부하며 불사의 원력으로 일할 스님을 모십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FM 94.5

BBS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타 운영위원장 설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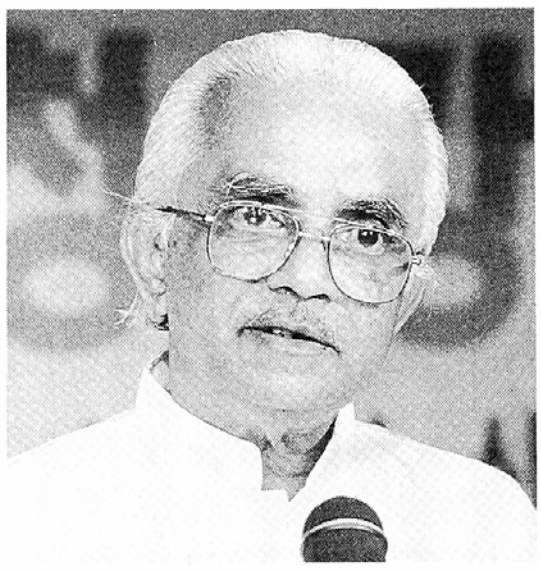
700-430 대구 중구 대봉동 156-1 진각빌딩
대표전화 (053)427-5114
팩시밀리 (053)427-4433

깨달음 나누기운동 40년 **아리야라트네** 박사 인터뷰

"비폭력은 행복한 삶 여는 길"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을 제창하여 세계 곳곳의 지역개발과 빈민구제에 헌신을 다해온 스리랑카 아리야라트네박사(65세)가 (사)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 설립 기념법회 초청강연차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내한했다. 아리야라트네박사는 10월26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초청강연회에서 "자비의 종교인 불교계가 앞장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명했으며 "사랑과 나눔의 불교정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야라트네 박사를 만나 깊게배인 그의 불교적 실천사상과 운동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만1천여 공동체 마을개발 빈민구제 전개
인류과제 환경보호…"봉사로 자비실천을"

-올해의 간디평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GPP(간디평화상)를 받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왜냐면 간디는 비폭력과 건설적인 일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이 상은 제가 평생해온 일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정부운동인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르보다야'는 만민의 각성이라는 뜻이고 '슈라마다나'는 시간 노력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현재 수십만명의 지원자와 훈련된 일꾼들이 참여하여 법률서비스와 이용, 유아교육, 주부의 교육과 수입증진, 환경과 관련된 제안, 대안에너지 개발계획, 분쟁해결훈련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운동을 펼치게 된 동기와 성과를 들려 주십시오.

▲실제로는 1957년인데요. 저는 농촌공동체의 마을주민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 행동으로의 길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하나의 마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만1천3백여 마을에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르보다야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선 저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서 얻어지는 행복, 이것이 모든 이가 원하는 행복이므로 민족 종교등의 장애를 넘어서 자신을 각성시키고 점차 더나아가 사회 국가등으로 확대시켜 살기좋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간디정신과 불교사상의 실천가로 비폭력을 통한 사회 경제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여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비폭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폭력이 우리삶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최초의 인간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인류최고의 휴머니스트로 존경했던 간디도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비폭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으므로 부처님과 간디의 가르침을 접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겨 제시된 해결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가난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세계에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환경의 파괴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체제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강 바다 산 공기등 우리가 해야할 일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의 완성을 염원하는 청년불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말씀 부탁합니다.

▲우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청년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모든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대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불교지도자들과 스리랑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2번째 한국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난 30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석굴암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봉하던 사람의 정수가 그대로 표현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JTS를 비롯한 여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에 동의하고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국불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됐습니다.

김원우 기자

아리야라트네는 누구

부처님·간디정신 실천가

아리야라트네박사는 1958년 콜롬보 나란다대학 교수시절 교사와 학생들을 모아 한 가난한 마을에서 슈라마다나 캠프를 만들었다. 사회과학자이면서 부처님의 사상과 간디정신의 실천가인 그의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은 중국 태국 필리핀에까지 확장되는등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300개의 공동체 마을을 만든 그는 간디평화상 막사이사이상 일가기념상 허버트 H 험프리상등 10여개 상을 수상했다. 현재 아시아위원회의장 세계은행자문회의 NGO멤버 세계종교인평화회의(KCRP)대표 세계종교의회 대표 세계학술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지구의 평화교육〉 등 6권의 전집이 있다.

선우도량 '사찰환경 보존과 개발' 좌담회
"범국민 사찰환경대책위 구성하자"
50여 전통사찰 훼손…조계종 '환경교서' 발간 검토

"사찰 수행환경은 불교의 수행, 신행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통적 공간의미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물리적 사회적 요건이자,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정신적수양을 위한 수행의 공간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야 한다. 고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사찰환경보존차원의 1차적 개발반대가 아니라 민족적정기 수호를 위한 환경보호차원의 개발반대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사찰주변 개발 및 환경파괴로 분쟁중에 있는 사찰관계자와 환경운동단체, 조계종 문화사회부 관계자는 사찰수행환경 및 불교계 환경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정의했다.

전국의 조계종 소속 6백92개 전통사찰중 50여개 사찰이 개발우선정책으로 수행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이 지난 10월 31일 녹수청산에서 '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개발문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개발권자와 분쟁중인 선암사 금산사 증심사 관계자들의 현황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좌담회에서 금산사 영진스님은 "지역개발과 그로 인해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는 개발권자와의 분쟁보다 오히려 더 극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주민을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설득해 오히려 그들이 사찰수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스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개개사찰별로 이뤄져 오는 불교환경운동을 지양하고, 종단과 지역사찰 환경단체가 하나의 연결고리 아래서 대처할 수 있는 범국민적 대책위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종단차원의 대책기구마련은 물론 환경운동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덕신스님은 '(가칭)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 종단차원의 대책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과 '환경교서' 발간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경운동연합 이치범 사무처장은 "현대사회에서 지역개발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더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시 론

누구를 믿고 사나

지난 9월 중순경에는 동해에 나타난 북한 무장공비가 타고 온 잠수함 때문에 온 나라안이 긴장하였으며 불안에 떨었다. 이때 우리 국군은 전력을 다하여 공비 소탕에 나섰고, 국민들은 그나마 군만 믿고 잠들 수 있었다. 우리들은 간첩을 잡기 위해 추석 명절도 쉬지 않고 수색하던 군인들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 한편 70만 대군의 상징이었던 국방부장관이 공비 소탕도 다하기 전에 옷을 벗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다. 국민들이 공비 때문에 떨고 있을 때 국방부장관은 사기꾼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떨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공비보다도 사기꾼이 더 무서웠을 것이다. 국방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이러하니 공비가 어찌 제대로 잡힐 것이며, 북한이 마음놓고 간첩을 남파하지 않겠는가? 그나마 운이 좋아서 잠수함이 좌초되었으며, 우리 군은 소발에 잡힌 쥐를 가지고 소란을 떨었다. 만약 잠수함이 좌초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의 안방을 마음대로 드나들더라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해진다.



보 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양호 전장관이 누구인가. '인사가 만사'라고 노래했던 현 정부가 발탁과정에서도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었던 신앙심 깊은 기독교장로 였다고 보도된 인물이다. 필자는 당시 이를 보는 순간 아연실색 했다. 기독교 장로와 국가안보는 무슨관계가 있는지 알수 없었다.

패망한 나라의 군인들

국방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라가 튼튼해야 어디를 가든지 떳떳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패망한 나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장개석이 이끄는 군대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모택동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으며 연합군의 지원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바지에는 본토를 내주고 집으로 쫓겨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군인 정신의 해이와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장개석 군대의 지도자들 중에는 최신무기를 적에게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많았다. 월남의 패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이적행위자라고 한다. 이적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의상스님의 국방 법문

과거의 지도자들이 무기를 구입하면서 검은 돈이 왔다갔다 한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름도 근사한 율곡사업이다. 율곡선생의 이름이 최대로 오염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김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나는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설사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밑의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부정한 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최고책임자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가 무기구입을 하면서 그 성능과 가치는 뒷전으로 하고 뇌물에 의해 구입무기가 결정되며, 진급에는 능력과 공적이 참고되지 않고 더 큰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이와 같은 부정 군대가 적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결국에는 패전하고 말았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해마다 수많은 세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북한에서 겁낼만한 무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는가?

신라시대의 문무대왕은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던 의상스님에게 국방에 대하여 한마디의 조언을 구하면서 서라벌에 큰 성을 쌓고 싶다고 하였다. 이때 의상스님은 흙이나 돌로 큰 성을 쌓기보다는 국민들 모두가 마음의 성을 튼튼히 쌓아야 적의 침입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과 안보를 위하여 온 국민의 단결된 마음가짐과 물샐틈없는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최신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쇳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부디 마음에 구멍 뚫린 국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국방이 되어주길 바란다.

생활 속의 불교 ⑨⑥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구속하는 삶



누구나 본능에 속하는 세가지 욕망을 지니고 있다. 식욕 수면욕 음욕이다. 이 삼욕(三欲)은 생명력의 표현이다. 살아있기에 그런 욕망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삼욕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의 충족을 위한 방편의 선택에 대해서만 잘 잘못을 따질 뿐이다.

욕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소유하려는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말을 바꾸면 욕망이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로든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그 취하려는 마음이야 말로 자기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자기를 목마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좋아하는 것을 꼭 취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욕망, 갈애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일을 꾸미게 한다.

욕망의 싹이 트면서 하나의 세계가 그것을 중심으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계란 결국 욕망·갈애의 산물인 것이다. 세계를 만드는 것도 부시는 것도 다 욕망이 낳는 행동력에 달려있다.

강한 욕망은 뭔가를 크게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강한 고통을 끌고 다닌다. 욕망의 강도와 고통의 강도는 정비례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닌 욕망 중에 이 육신을 지닌채 오래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강하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장 강하다. 이렇듯 고통과 짝을 이루지 않는 욕망이란 없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모든 욕망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욕망 그 자체는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요 구속은 곧 고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 욕망이 자기에게 고통도 함께 가져다 준다면 그런 자기 사랑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인가. 저를 사랑한다면서 고통을 안겨주다니…

불가에서 욕망을 번뇌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기 사랑인지를 모르고 바깥의 사물과 형상에 미혹되어 고통을 불러들이고 있으니 욕망이 어찌 번뇌가 아니라 하랴.

욕계사혹(欲界思惑)이라는 말이 있다. 이 욕계에서 허우적대는 중생들은 누구나 사물과 형상을 대할 때마다 탐·진·치·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탐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자만에 빠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생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작 탐·진·치·만의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자기 사랑인가. 역대 조사들은 '쉼' '놓음'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사랑의 길이요 완벽한 충족의 길이라고 가르친다. 욕망을 채워서 충족하려하지 말고 쉼으로써, 놓음으로써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쉼과 놓음이 어렵거든 자제와 지계로써 또는 헌신과 서원으로써 욕망에 대신하라는 가르침도 있다. 자제와 지계는 가급적 욕망을 줄여나가는 방법이고 헌신과 서원은 반대로 더 큰 욕망을 세우는 방법이다. 큰 욕망이란 모든 잡다한 욕망을 끌내려는 욕망이다. 말하자면 정화된 욕망, 자질구레하게 나를 위하는 욕망이 아니라 진리에 몸을 기울이는 욕망, 전체를 위한 욕망인 것이다.

원, 원력, 서원, 발원, 오도, 증오, 각 등등, 불자라면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리는 용어들은 바로 욕망의 정화,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을 일컫는 것이다.

협찬 : 임 재 환

법회 안내

일지사(02)878-3653

자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밀교교리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어린이 한자교실
매주 토·일 오후3시

묘각사(02)763-3345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영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마하연 부평포교원
(032)513-5328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천수경강좌 금 오전10시30분

삼화사(0394)34-8313

일반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둘째 넷째주 일 오전11시

화엄정사(051)206-5515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매월 15일(음) 오전11시
불교대학강의 목, 금 오후8시

사리암(051)291-2809

신중기도 1~3일(음)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영화사(051)416-3529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매월 7일(음) 오전10시

개운사(051)521-4848

정기법회
매월 1일(양) 오전10시
매월 1일(음) 오전10시

약수사(051)555-4332~3

인등기도 1~3일(음) 오전10시
조상천도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공덕원(051)625-2253~4

지장천도 매월 14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주 화 오전11시
지장불교대학강의
매주 수 오전10시30분

원만사(053)253-3373

초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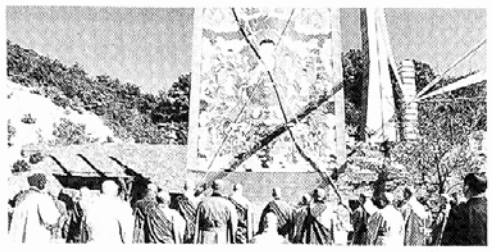
관음포교원(051)517-8482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주부경전교실 매주 금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내원정사(051)242-0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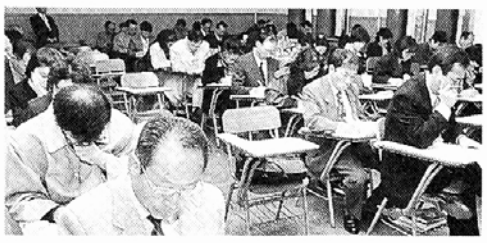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토 고려사 한국인 희생자 위령법요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령법요 및 한일우호 세계평화기원대재가 지난 10월27일 일본 교토 고려사에서 봉행됐다. 괘불이운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고려사주지 태연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국회 정각회장 서석재의원, 일본 사천왕사주지 가또준도, 김세택 교토총영사 등 한일 양국에서 3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전국서 일제실시

제2회 조계종 포교사고시가 지난 10월27일 오전9시 서울 동국대 명진관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의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고시에는 전국 40여개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한 339명이 응시, 필기 및 면접시험을 치렀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0일 개별통지한다.



명원문화재단 · 차생활문화원 현판식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개원 현판식 및 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 이전 현판식이 지난 10월31일 성북구 성북2동 330-508에서 거행됐다. 이날 개원 현판식에는 석주(칠보사 조실) 태응(불교TV 사장) 혜초(태고종 총무원장)스님, 이승원(한국스키협회장) 김종규(삼성출판사 회장)씨등 관계인사 50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생명나눔실천회 보타사 철야법회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지난 10월26, 27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보타사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철야정진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회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겸해 진행된 이번 철야정진기도에는 2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장기수혜를 희망하는 불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교차로

중고생 35명에 장학금



현해월 정사주지는 지난 10월29일 진부중학생 15명, 진부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업을 격려했다.

뉴욕 불교진흥재단서 설법



진철스님 前 통도사 자비원장은 미국 뉴욕 불교진흥재단이 마련한 초청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월29일 출국했다. 스님은 뉴욕 불교진흥재단 총이사회와 원각사 일요법회에서 설법했다.

'국제포교' 주제 대법회 열어

성해스님 선학원장은 지난 10월29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한국불교가 국제포교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서울대법회를 봉행했다.

佛서 귀국 송광사 주석



지묵스님은 1년6개월여의 프랑스 길상사 법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0월23일 귀국했다. 스님은 송광사에 주석하며, 수필집 〈봉주르 길상사입니다〉(가제)를 집필한다고. 한편 길상사는 새법사로 회일스님이 취임했다.

매주 목요일 원각경 강의



목정배(사)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서울 장충동 법사도량에서 매주 일요법회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 10월27일 첫 법회를 봉행한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원각경을 강의한다.

대장경 판각성지 개토식

성원 선원사주지는 지난 6일 강화 선원사에서 인천광역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발굴 조사단에 의해 고려팔만대장경 판각성지 개토식을 가졌다.

에세이집 '법이 뭐길래'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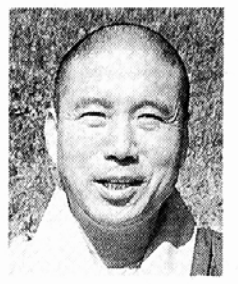
조상원 현암사회장은 최근 법륜관계 에세이집 〈법이 뭐길래〉를 출간했다. '법의 헌주소를 찾아서' '있으나 마나한 법률' 등 98편의 글을 통해 쉽게 법을 풀어냈다.

적십자 봉사장 금장 수상



정형식 일양약품회장은 지난 10월25일 대한적십사사 창립 91주년 기념 '96적십자포상 시상식에서 인도주의 이념구현과 적십자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적십자봉사장금장'을 수상했다.

모전복지관 초대관장 현 관 스님



"장애인 복지등 5대 사업 주력"

불심을 바탕으로 위탁운영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동체사상에 의거해 복지관의 슬로건을 '자비나눔의 집'으로 정했다는 스님은 불우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만들기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관스님은 "복지관운영은 불교의 자비사상과 일맥상통한다"며 "모전복지관은 지역포교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전복지관은 앞으로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등 5대 복지사업에 걸쳐 활동을 벌이게 되며 현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있다.

(0581)555-0108

대구=이윤호 기자

희갑 맞은 두 여교수

올해초 동국대 불교학과 두 여성교수가 회갑을 보내자, 최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위 동료와 제자들이 화갑논총 발간과 기념 강연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두 교수에게서 **회갑년을 보내는 감회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 주〉

동국대 불교학과 이 영 자 교수



"마지막까지 정열 쏟아야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4년간 강의와 연구작업에 미지막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지난 2월 회갑을 맞은 이영자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34년간 불교학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맞은 삶의 훈장에 대한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세월의 길이만큼 학문적 깊이를 더하지 못했다"며 겸손한 학자적 욕심을 내보였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일본 대정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교수는 同 국대에서의 교수직을 시작으로 동대학 불교대 학장과 한국여성학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교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천태학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제자들이 〈천태사상과 동양문화〉를 제목으로 한 화갑논문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인가봐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신 현 숙 교수



"학문의 길엔 끝이 없어요"

일본 고마자와대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신현숙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가 지난 1월로 회갑을 맞았다. 때마침 올해로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설립 10주년이기도 해 더욱 뜻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학문의 길이 끝이 있나요. 지금까지 불교를 배워왔다면 회갑은 그동안 배운 것을 후학들에게 열심히 전하라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1년간의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신교수는 '인도의 신비사상과 문화'를 주제로 한 논문 준비에 여념이 없다.

〈원효의 인식과 논리〉〈원측의 불교적 인식론〉 등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신교수는 "부처님 법을 따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후학들을 지도하는 것이 제 길이라고 믿어요" 라고 밝혔다.

〈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권 태 준 사무총장



"한국의 지적유산 세계에 알릴터"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돼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1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권태준씨(59·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임명됐다.

권총장은 "세계유산이 위협받는다는 분명한 근거가 나온다면 유네스코는 본부와 180여개 가입국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책임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총장은 "다가오는 정보사회란 다름아닌 정신적 창의성과 업적이 존중받는 문화사회"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지적(知的) 업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모집 생활수기=서울소년녀가장돕기모임(회장 황남채)은 96 문학의 해를 맞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수기를 모집한다.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30매내외. (02)3422-0470

강좌 화엄경=야탑사는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 7시30분 화엄경 강좌를 마련한다. (0342)702-7793

4개월 특강=금강사 금강불교교양대학은 오는 11일부터 4개월과정으로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매월 음력 1·7·24일 오전10시30분부터 12시까지. (02)993-3744

행사 현판식 및 점안법회=동국불교신문사는 오는 15일 오전11시 본사 서울·경기 취재 본부 사무실에서 현판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2)464-7047

화측 본사 부다피아팀 지유미씨가 오는 10일 오후3시30분 서울 레팡가든에서 주노겸씨를 신랑으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원 효 연 구 원

이영무 불교선집 '기원의 꽃' 출판기념 및 원효연구원 발족 기념 법회

"

-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그동안 불교지와 신문등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기원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3권을 편찬 간행하여 여러분 앞에 내 놓습니다.
항상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출판기념 법회 및 연구원 발족식**을 가지려 하오니 보람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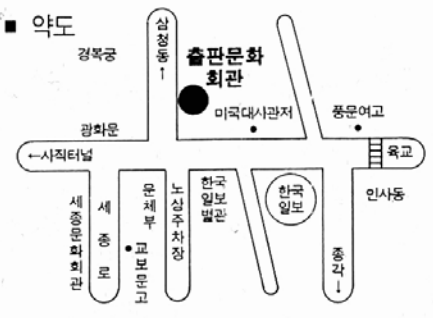
1996년 11월 일

원효연구원 이사장
운제 이영무 합장

■ 일시 : 1996년(불기 2540년) 11월 9일 15:00

■ 장소 : 출판 문화 회관 4층 강당 TEL(02)735-2701

■ 약도



담당 이석준

원효연구원 연락처: 723-0425 팩스 : 725-1094

奉 **青潭 大宗師 25週忌 追慕大法會 案內** 行

청담 대종사 25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0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02) 993-5002 종무소 (02) 993-3161(3)

불기 2540년 11월 1일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도선사 주지 차동광
청담 문도회 일 동 합장

직 원 모 집

승가원과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는 1.주간보호사업(장애아동)과 2.순회재활사업을 숭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주간보호사업에서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조기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며
2. 순회재활사업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주 대상으로 제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할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사회복지사	1	해당자격증 소지자, 재가센터 경험자
특수교사	1	해당자격증 소지자, 장애아동 교육경험
보육교사	1	해당자격증 소지자
간 호 사	1	해당자격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기능
거 사	1	해당자격증 소지자, 1종 보통이상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우편. FAX접수가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 2. 면접 - 개별통보
근 무 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
서류제출	96년 11월 20일 까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 5가 102-62 원우빌딩 3층 법인사무국
문의전화 928-0750 팩스 928-0752

"시행착오 거쳐야 안목 생겨요"

산문밖의 禪

중국문화재 수집가 김형석 翁



그윽한 역사의 향기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과거의 자취를 간직하려는 보이지 않는 매니아(mania)들에 의해 흔적이나마 보존된다. 흙속에 파묻히고 말았을 역사의 파편들이 몇몇 수집가들에 의해 되살려져 오늘날에도 당시 문화의 편린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70여년간의 외국생활을 통해 5천여점의 중국 골동품을 수집한 김형석(金亨石·84)옹. 그는 바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해서 과거의 빛을 미래로 전달하는 '문화의 지킴이'이다. 일제시대 중국 국부군 장군 출신으로 독립군 제15지대장을 겸임한 독립유공자이기도 한 김옹은 평생 중국 골동품 수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웬만한 박물관 수준 못지 않은 소장품을 갖고 있다.

40년대 말부터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유럽 등 세계각지로부터 수집한 중국의 각종 문화재를 몇년전부터 국내에 반입, 청나라 건륭제의 곤룡포(袞龍袍), 중국 국보급인 계혈석(鷄血石), 송나라때의 술잔, 7천여년전의 토기등 과거 찬란했던 중국의 문화유산 5천여점이 서울 도곡동 소재 김옹의 사무실에서 숨쉬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그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는 중국 도자기와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문화재 등.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는 3백여점의 중국 도자기는 '우리나라 태극기 변천사'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중국 인도 티벳 태국 등지에서 수집한 2백여점의 불교문화재는 한(漢)대의 불상과 당·송대의 옥돌로 된 불상, 티벳의 요령과 불화, 향로 파고다 등 불교문화의 다양한 변화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들이다.

김옹은 감정능력 또한 뛰어나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중국정부로부터 '북경시문물감정자문센터(北京市文物鑑定咨詢服務中心)' 감정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내에서는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문직도 맡고 있다. 그러나 골동품의 진위여부를 완벽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 김옹의 지론이다.

"골동품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물건을 만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 전문가들도 분야가 있어. 목 동기 토기 등 재료별, 시대별로 전공이 다르지. 일반적으로 아는 것만으론 안돼. 보기 아주 어려운 것이나 희귀한 것은 더욱 감정하기 힘들지. 여러명의 전문가를 따로 불러 감정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전부 진짜, 전부 가짜가 되고 마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지."

김옹은 뛰어난 감정가와 골동품 수집가는 엄청난 시행착오 뒤에 탄생된다고 말한다.

"처음 골동품을 수집하는 자는 화려하고 이쁜 거만 좋아해. 그러나 문화를 알기 시작하면 험하고 더러운 것을 찾게 되지. 큰 수집가가 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아무리 큰 부자라도 돈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이름난 수집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잘못 산 골동품을 팔고, 싸게 산 물건을 가치가 높아진 뒤 고가로 파는 방법으로 훌륭한 골동품을 하나 둘 늘려가지. 결국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야. 그런데 그 안목은 책과 경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지는 거야."

유물감정 감각 넘어선 사물본성 보는 직감 필요

과거 미래로 잇는 '문화지킴이'
70여년간 골동품 5천여점 수집
"여생을 민족혼 일깨우기에…"

김옹은 오래된 유물의 감정에는 눈으로 식별하는 방법외에도 손의 촉감, 혀끝의 미각 등 감각 외에도 오랜 훈련과 공부를 통한 직감(直感)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마음의 눈을 틔워 사물의 본성을 여실(如實)하게 궤뚫을 수 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혜안(慧眼)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란 설명이다.

"어느때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가와 함께 문화재를 감정한 적이 있는데 장갑을 끼고 하더구만. 그래서 그때 웃었지. 말레이지아에 있을때 미국대사가 1백만불짜리 명대의 보물을 보지 않고 만져서 알더구만. 그만큼 촉각이 골동감정에는 필수적이지. 하지만 진정한 대가(大家)는 감각을 넘어선 직감을 더 중요시 해. 골동품과 감정가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서 느껴지는 시공을 뛰어넘는 문화적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요한 게야."

김옹이 중국문화재 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49년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면서 홍콩으로 건너간 이후부터. 홍콩총영사업공사와 용마화랑 사장,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국상품수출담당관등을 역임하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중국문화재 수집에 신명을 바쳤다. "중국군 장교시절 교분을 맺었던 사람들이 중국 군부의 요직에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골동품 수집이 가능했다"는 김옹은 최근 서울 그랜드백화점에서 한·중수교 4돌을 기념하는 '중국문물전시회'를 열어 비장의 소장품들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집한 중국문화재를 널리 알려 후손들의 역사공부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일깨워주고 싶다"는 김옹은 "남은 여생을 민족혼과 도덕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회운동에 바치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도 막내딸 김국현씨(36)에게 '장군님'으로 불리는 김옹은 법정에 줄줄이 선 오늘날 장군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친다.

"흔히 '영웅이 시세(時勢)를 만드느냐, 시세가 영웅을 만드느냐' 하는 말을 하지. 그러나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거의 없어. 대부분은 시세가 만든 영웅에 불과하지. 다만 나폴레옹은 진짜 영웅이었어. 수많은 고비를 헤쳐가며 시세를 좌지우지 했지. 오늘날은 가짜 영웅이 판치는 세상이야. 한마디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지. 돈이 영웅을 만들고 위인을 만들지. 그 여파로 부모를 팔아먹는 세상이 되고 있어. 도덕과 인격은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독립됐지만 껍데기만 남아있어. 총갖고 대통령된 전·노 장군을 포함한 장성들이 조금이라도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뇌물을 모으진 않았을게야. 썩어문드러진 정치를 보면 가슴이 욱통해. 결국은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나라와 개인은 둘이 아니야…"

김재경 기자

도인이 왜 병마에 시달립니까

문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공부하는 해외교민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① 비쁜 세상에 언제 다리꼬고 앉아있느냐 하시는데 좌선삼매의 수행없이 본래 모습 찾을 수 있는지요.

② 현상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율에 지배된다면 중생의 삶은 꼭두각시 같아서 오도하기 전엔 자유의지란 끼어들 자리가 없는게 아닌지요.

③ 마음과 육신이 하나일진대 오도하면 인과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어떤 도인은 왜 병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지요.

④ 의문이 생기면 마음자리에 들어 관하는 것이 바른 수행자세일 것인데 스님께서는 왜 질문하라 하시고 답을 하시는지요?

〈한성·美 로스앤젤레스〉

답 ① 늘 말씀드리지만 행주좌와, 24시간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일체 만물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잠시도 쉬지않고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는데 어느 때는 참선이고 어느 때는 참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보게되는 일이지만 무슨 백일기도다 천일기도다 하는데 우리가 백일만 살고 천일만 살겠다는 게 아니지요. 또 지구가 백일만 돌고 천일만 돕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니 수행에도 쉼이 없고 참선도 쉼이 없이 그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참선이요 진짜 수행인 것이지요. 좌선삼매를 말씀하시는데 삼매로 말할 것 같으면 좌선뿐인가요. 행선삼매도 있을 것이고 와선삼매도 있을 것이지요. 삼매란 어떤 조건에 맞아야 삼매인게 아니라 밥먹는 데도 삼매가 있고 일하는데도 삼매가 있습니다. 옛 선사들이 좌선삼매를 강조한 것은 또 한 방편입니다.

② 인과법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사님은 인과율이 기계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삼세심불가득이라는 말을 아시겠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또한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일 뿐인데 그러면 과거의 업은 다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과거의 업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몽땅 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내 자동컴퓨터에 수억겁의 업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입력되어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과거의 노비문서를 잔뜩 짊어지고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입력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비유로 하는 말이지만 입력된 위에 다시 새 것을 입력해야 하겠지요. 저 녹음테이프를 재생해서 쓰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행이란 뭡니까? 방금 한 일도 찰나에 과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째서 자유의지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하십니까? 처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도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지요.

③ 백장야호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불락인과라는 말 때문에 오백생이나 여우 몸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백장선사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던가요. 불매인과라 하셨지요? 인과법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고 인과법에 어둡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둡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마음공부하는 까닭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본래 밝아있음을 알고자하는 것이지 신출한 능력을 얻자는게 아닙니다.

④ 부처님께서는 왜 평생동안 설법을 하셨고 역대 조사님들은 또 무슨 까닭에 대중을 제접하고 설법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중생이면 누구나 다 부처될 성품을 지녔고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무명에 잠겨서 그저 탐진치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삶이란 고해일 뿐이고 그 고해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일러주는 이 법을 와서 보고 듣고 배워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그대로 여여하고 자재로우리라.' 그렇게 평생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선사들께서 대중을 가르치신 까닭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가는 것을 보았기에 발앞을 볼 수 있게 등불을 들어 비춰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대자대비요, 중생들로서는 그 은혜의 지중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 은혜갚음은 바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의문이 생겼을 때 관하는 공부는 내가 평소에 늘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참 의정인지도 모르고 관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제 나름대로 '아하, 이런거구나' 하고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될게 아닙니까? 공부가 익은 분들은 그냥 한 두마디에 알고 몸짓만으로도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소화가 잘되게 해야 하겠지요.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반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맑고 향기로운 삶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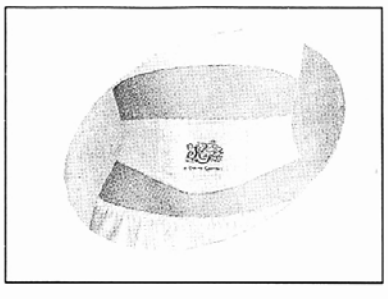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 해드립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도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 (바라밀 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국가정의·자유실현 '종교의 몫'

한국불교硏 '종교와 국가' 주제 국제학술대회


◇이기영박사


◇포르교수


◇황심천씨


◇고범서교수

"모든 국민 보살되게 하는 것" 불교의 사명
견제·비판 통한 방향제시로 공동체 구현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국가에 대한 불교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는 국제학술회의가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 주최로 오는 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 '불교와 국가'에서 이기영 원장은 불교는 그릇된 자아관에서 벗어나 우주적 보편성, 평등성을 갖춘 존재로 되돌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등 '국가'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청년 엘리트들이 보살이 되고, 국민 모두를 보살이 되게 하는 것이 불교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장은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이 아닌, 그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세계관이자 인생관이라고 단언하고 〈화엄경〉의 삼귀예문(三歸禮文)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 불교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개념은 물질 또는 관념으로서의 '국가' 일뿐 국가에 대한 개념은 재해석되고 재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독교 신학이나 서양철학의 이원론적, 관념론적 인간주의에서 파생된 그릇된 국가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Bernard Faure·美 스탠포드대 철학)는 '왕권과 종교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논문에서 불교는 언제나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 속에서도 종교적 신성함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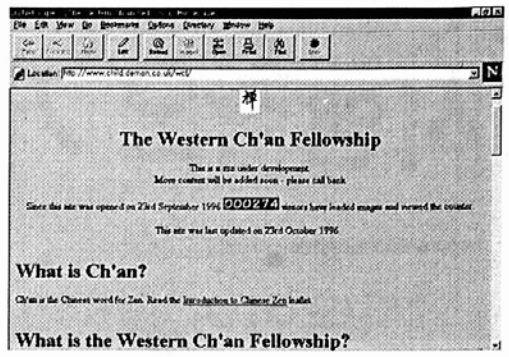
포르 교수는 불교의 이상이 '권력과의 단절'에 있으나 종교로서의 생명력인 불교적 실천은 모든 권력의 근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왕권과 종교가 상호보완의 이데올로기 협력의 역사를 이뤄왔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적 힘은 비록 세속화된 것이긴 하나 성스러움과 신비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심천씨(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는 '중국 역사상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서 불교 등의 각 종교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축적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중국 종교와 사회주의는 공동 발전하는 추세이므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중국의 종교노선은 종교가 사회주의 국정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어냈으며, 따라서 국가와 종교의 협조를 통해 상호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범서 교수(한림대 과학원 신학)는 '국가와 종교 : 기독교의 경우'에서 국가는 종교가 그 본연의 역할 수행을 보장해야 하며, 종교는 국가 또는 정부의 절대화를 막는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의와 자유 실현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정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영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불교 교우회

유럽에 중국 禪불교 집중 소개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룬 유럽지역에 중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하는 '선불교 교우회'가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선불교 교우회'는 영국의 서남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브리스를 선불교會'가 주축이 돼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던 유관단체들이 모여 지난 9월초에 브리스틀에서 결성됐다. 첸(Ch'an)이란 선(禪)의 중국식 발음표기.

이 사이트를 개설한 '선불교 교우회'의 초대 회장 존 크룩씨는 성엄스님(대만 農禪寺)의 법제자. 성엄스님은 지난 63년부터 일본·미국 등지에서 선(禪)센터를 개설해 중국불교의 포교에 전념한 스님. 따라서 '선불교 교우회'를 방문하면 중국불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불교개관 △수행관 △권장도서 △전자잡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선불교 교우회'가 제공한 정보 중에서 법문, 선시, 선불교 교우회의 활동과 관련사진 등이 실려있는 전자잡지인 '禪광장'(New Ch'an Forum)과 중국 선불교의 '법계도' 등이 불자네티즌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보이다. 이외에도 '선불교 교우회' 산하 기구인 '청화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연구소는 1895년 대만에서 설립된 불교연구 및 교육기관. 또 뉴욕·켈리포니아·대만 등지에서 중국불교의 포교에 노력하는 선(禪)센터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선불교 교우회' 사이트 주소는 'http://www.child.demon.co.uk/wcf/'이다. 〈욱〉

인터뷰

"불교윤리관 민주주의 요체"

써만교수가 말하는 불교의 사회관



지난 10월 24~25일 열린 동국대 개교90주년 불교학술회의에 참가했던 해외학자중 가장 관심을 끈 학자는 로버트 써만 교수(Robert Thurman·美 콜롬비아대 불교학). 다른 해의 학자들이 발표문 번역본을 미리 배포한 것과는 달리 발표당일 뒤늦게 영어 원문만을 제시해 불평을 샀음에도 정열적인 발표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청중들을 매료시킨 것은 불교에 대한 그의 해석과 미래관이었다. "불교의 위대한 윤리관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속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적 평등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한때 티벳서 승려생활
"불법·세속 조화위해 노력"

1965년 14대 달라이라마로부터 수계를 받고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티벳스님이 되어 한때 승려생활을 하기도 했던 써만 교수가 이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은 '불교에는 사회적 윤리'가 없다고 믿는 서양인들의 편견이었다.

"부처님의 대각은 세속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고통의 극복을 제시하는 불교의 교육주의적 사회윤리가 어떻게 세속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동질적으로 보는 불교의 윤리관은 대승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사상이라고 강조한다.

"나는 티벳이 부처님 법을 나에게 전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키 위해 불법의 지혜와 세속적 지식의 조화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입니다."

종교적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세상을 평화롭게 비출 수 있는 법향임을 써만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우〉

"우주생멸 연기론서 비롯"

불교는 진화론 어떻게 보나

교황 '진지한 가설' 인정 메시지
"진화-창조론 서구 이분법적 사고"

최근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30여년 만에 진화론을 인정함으로써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독교가 그동안 줄곧 창조론을 주장해왔음을 고려할 때 교황이 교황청 아카데미에 보낸 메시지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진지한 가설'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한 '창조론'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는 과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할 것인가.

불교는 진화나 창조는 2차적인 문제일 뿐 인생의 고(苦)를 푸는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불교는 진화론이나 창조론 보다는 연기론을 강조하고 있다.

호진스님(동국대교수·불교학)은 "불교는 창조주와 같은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업력'이라는 특수한 에너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정교수(동국대 철학)는 "연기에 의해 스스로를 조직한 '자기조직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우주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구조 속에서 각기의 생명속에 또다른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성규교수(영남대 의대) 역시 "생명의 태동근원은 연기론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서구의 2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으로는 생명태동의 진리를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김교수는 '연기론=존재론+창조론+진화론'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양형진교수(고려대 물리학)는 "진화론에 가깝긴 하나 이는 포괄적으로 볼 때 연기론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창조론이 사물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상주론적 입장이라면 진화론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아의 사상이며, 우주의 생멸 또한 연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신

다석사상 추계강연회 열려

다석사상연구회(회장 서영훈)는 지난 10월 25일 문화일보홀에서 '다석사상 추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흥호교수(감신대)는 '다석 유영모의 반야심경 해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다석선생은 사법계(事法界)와 이법계(理法界), 즉 색(色)과 공(空)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철인(佛)이 나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학사硏·불교학회
11월 8·15일 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원효학회가 잇달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는 오는 8일 동국대 명진관에서 '승장과 문학'을 주제로 제6회 정기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조선시대의 승장에 대하여'(김영태교수·동국대)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은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제1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원효사상을 폭넓게 고찰한다. 서윤길교수(동국대) 등 5명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15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제26회 추계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최성렬교수(조선대)외 9명이 각기 주제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6~8세기 불상·사원 양식 유사

일본에 끼친 백제불교 영향 조명

2日 미술사학대회 열려

지난 2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미술사학회(회장 이성미) 주최 '한국미술의 대외교섭 백제편'을 주제로 한 제5회 전국미술사학대회에서는 백제의 불교조각과 건축이 일본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는 논문 3편이 발표됐다.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는 '백제 불상조각의 대일교섭' 논문발표에서 문헌을 살펴볼 때 백제는 6세기 후반부터 일본에 집중적으로 불교를 전파해 일본을 불교국으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상을 보내 백제불을 일본 사찰에 봉안하게 하는 등 불교전파 초기 백제에서 만든 백제불상이 일본의 모든 사찰에 봉안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띠매듭고리나 착의법 등이 일본 고대조각인 비조불상(飛鳥佛像)과 동일한 점등 백제불상은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중국佛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씨(문화재연구소장)는 '백제건축의 대일교섭'에서 백제불교건축이 들어가기 전의 일본건축은 원시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6세기 이후 비조사(飛鳥寺·나라시대)의 조영을 시작으로 사원이나 궁전의 건축은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7~8세기에 걸친 사원건축의 유구(遺構)는 이같은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기교수(목원대 고미술사학)는 백제건축의 대중교섭을 살피면서 백제건축의 양식과 기술이 중국건축 양식의 형성시기와 동시적으로 발전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중국과는 달리 복잡하거나 화려함을 극히 배제하였음은 유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설립기념 대법회

21세기를 향하는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과학화, 전문화,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사회를 계도해 나아갈 사명을 지닌 불교인은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와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 해야할 불사는 인재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은 스님들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두 수레바퀴 중 한 축을 이루는 재가자, 특히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 해야만 불교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관심사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 재단법인 금정장학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원력을 모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임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금정장학회 설립 기념대법회에 부디 참석하셔서 이 조그마한 모임이 불교인재육성의 강로수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사장 벽파 합장

■ 설립기념법회

▷ 일 시 : 1996년 11월 15일 (금) 오후 6시
▷ 장 소 : 동래 온천장 허심청 대연회장
▷ 초청법사 : 월주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설립발기인 : 덕명스님(전 범어사 주지) 홍교스님(전 범어사 주지)
보해스님(법륜사 주지) 여현스님(정수사 주지)
영환스님(범어사 부주지) 벽파스님(전 범어사 주지)

▷ 장학수혜자(일년분 - 등록금)
· 범어사 재적 승려중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각 대학 대학원에서 불교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스님 및 범어사 강원에서 정진하는 스님 20명
·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신심 돈독한 불자 청소년 20명

■ 금정장학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신행운동을 전개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을 뒷받침합니다.
· 장학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인재육성에 힘씁니다.
· 불교 문화의 생활화,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 불교관련 학술분야를 연구 증진하여 불교진흥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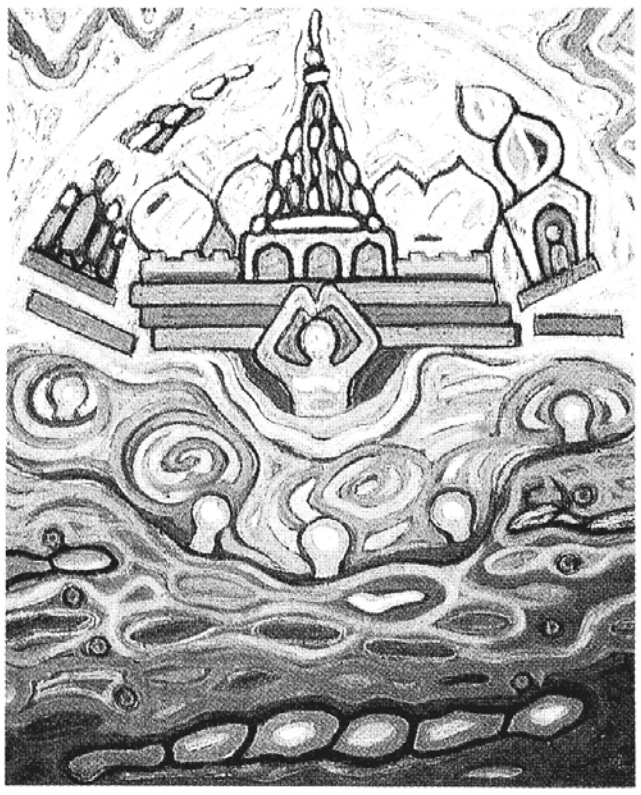
▣ 법인사무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TEL 051)403-7096·9802
FAX 051)403-9810

▣ 행사연락처 :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 3동 369-22
보현선원
TEL 051)853-5486~7

주체 부정…기본 가르침 '無我'

보르헤스의 ㉛ 불교강의

불교란 무엇인가 ④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실전력하여 성불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은 석도열스님의 회화 '윤회의 강'.

'나는 생각한다'→잘못 '생각이 일어난다'→타당
순간에 충실·부정 훈련 거듭하면 깨달음 만나

인간에게 허용된 여섯가지의 운명(六道輪廻) 중에서, 다시 얻기 가장 어려운 길은 인간이라는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붓다는 비유를 빌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다속에 살았는데, 육백년에 한번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 거북의 머리가 넓은 망망대하에 떠 있던 나무팔찌에 끼일 확률이 바로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기회에 우리는 성심전력하여 성불(成佛)을 이루고 열반에 들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신(神)의 개념을 부정하고,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란 존재치 않는다면, 삶의 의미와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떠오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禪)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기에,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빌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意志)〉를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를 인식하였습니다. 하나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육화(肉化)하고 또 세계라는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지는 철학자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표현됩니다. 베르그송은 '생의 충동(Elan vital)'이라고 불렀고, 버나드 쇼는 '생명력(the life force)'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르그송과 쇼는 '생의 충동'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꿈꾸고 창조해 나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와 붓다는 세계를 하나의 꿈(幻)이라고 보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수련에 의하여 그러한 각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태어나고(生), 늙어가며(老), 병들기도 하다가(病), 이윽고 죽습니다(死).

인생에는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붓다의 말씀 중 가장 정(情)적인 표현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꿈속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환영(幻影)이며 따라서 생이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정신수련과 명상을 중시합니다. 불교사원에서 하는 수련법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련자는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인공이라 부르고, 지금은 정오다, 지금 나는 뜰을 지나고 있다, 나는 지금 스승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되뇌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는 주인공과 정오, 뜰과 스승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아(無我)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나'라는 의식입니다. 이 점은 철학자 흄과 소쿈하우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정신적 상태만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아(常我)와 그것의 작용인 생각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 흄이 제시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를 오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온다'이지요. 주체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하지 누군가가 날씨를 덥게 한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난다'이며,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아프다'입니다. 이처럼 주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불교사원에서 초심자들은 매우 어려운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이 사원을 떠나겠다면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선 수행자들의 명단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 비서인 마리아고다마(일본계 혼혈로 나중에 보르헤스의 부인이 됨)가 한 말입니다. 초심자가 처음 절에 들어오면 매우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밥짓고, 청소하고, 마당을 쓰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서 낮잠잘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정신이 다다라야 하는 종착역은 이 세상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불교와 달마대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리달마는 6세기경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달마대사를 맞이한 중국의 황제는, 불교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원과 수행승의 숫자를 쭉 열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은 환영(幻影)의 세계에 속합니다. 사원과 승려들은 모두 무상(無常)한 것이고, 이 점에서 폐하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전에서 물러나 장시간의 면벽참선에 들어갔습니다.

달마대사를 시조로 하는 선불교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불교는 깨달음에 이르는 독특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수년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갑자기 옵니다. 그것은 결코 삼단논법이나 연역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진리를 자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넘어서는 갑작스런 깨침(일본어로는 흔히 사토리라 합니다) 입니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윤 경 원 〈코레스코 대표〉



늘 단주 매만지며 下心·正道 다짐
어머님께 물려받은 불심…사업은 봉사의 방편

나는 늘 주머니에 단주를 넣고 다닌다. 손버릇처럼 매만지는 나의 단주는 나를 바른길로 이끌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하심(下心)과 정도(正道)는 부처님을 믿는 사업가로서 내게 가장 중요한 계율이고 단주를 굴리며 그 계율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불심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보살'이란 말이 생소해서 그렇게 불리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정말 큰 보살이셨다. 지나가는 행상들이 밤에 들어와 잠을 청하면 거절을 하지 않으셨고 거지들에게도 늘 넉넉하셨다. 시장에 가셔서는 큰 가게 보다는 좌판을 벌여놓은 사람들의 물건을 팔아주셨다. 늘 남에게 지극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자리야말로 불자로서 추구해야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학교 다닐때보다 사업을 하면서 나도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주머니 속의 단주가 그런 나의 노력을 독려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가족호텔업을 처음시작한 것은 82년이었고 첫 호텔은 속초의 설악콘도였다. 설악콘도를 건설하는 동안 나는 낙산사를 수백번 찾아 갔었다. 사업의 첫단계이기도 했지만 공사란 것이 생각대로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럴때마다 찾아간 곳이 낙산사였던 것이다. 동해의 푸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늘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해수관음보살님 앞에서, 홍련암의 그 아늑한 법당에서 나는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서 뭇중생의 절절한 소망을 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낙산사를 찾았고 기도를 했던 것이다. 차질없이 공사가 잘 되길 빌었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바른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게 해 달라고 빌었다.

물론 불보살님의 가피로 첫 사업장은 잘 지어졌고 운영도 잘되고 있다. 나는 속초에 출장을 갈때면 당연히 낙산사를 찾아간다. 갈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반기시는 해수관음보살님을 만나는 마음과 어머니를 만나는 마음이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절실할때 어머니를 찾는 마음으로 찾는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어머니같은 푸근함과 자애로움으로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몇년전 낙산사를 찾았을때는 보타전 신축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기쁘게 불사금을 시주했고 신축되고 있는 보타전 건물에 경건하게 절을 하기도 했다. 다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절을하는 것은 낙산사에 관음보살님이 계신다는 나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잠시후 나는 다시 그 믿음을 현실로 체험할 수 있었다. '관음조'를 본 것이다. 홍련암 쪽에서 나는 푸른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흑청색의 새 한마리가 날아가는 걸 본 것이다. 바닷가니까 새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잠시 내 시야로 들어왔던 그 새는 왠지 평범한 새가 아닌 것 같았다. 비둘기 보다는 좀 작은 그 새가 무슨 새냐고 절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관음조라고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 사람은 관음조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새가 아니라고 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부러운 목소리로 축하까지 해 주는 것이었다.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나는 뛸듯이 즐거웠다. 속초의 설악콘도도 그렇지만 경주나 강화 치악산 가평등 사업장마다 주변에 명찰이 있어 나는 든든하다. 부처님 가까운 곳에 사업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하나의 힘인 것이다. 그렇게 사업장을 개척해 나가며 나는 불보살님께 무수히 기도를 했고 그럴때마다 가피를 수없이 경험했다. 그중 사이판 사업장을 건설할 때의 일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 · 잡지 · 카탈로그 · 서적 · 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 · 비닐포장 · 수축포장 · 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⑲

古代祖師 直指人心 見性成佛
고대조사 직지인심 견성성불
如達磨祖師的安心 六祖的惟論見性
여달마조사적안심 육조적유론견성
只要直下承當便了 沒有看話頭的
지요직하승당변론 물유간화두적
到後來的祖師 見人心不古
도후래적조사 견인심불고
不能死心榻地 多弄機詐
불능사심탑지 다롱기사

옛 조사들은 곧바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했다.

이는 달마조사가 '마음을 가져와보라 편안케 해주리라' 한 것이나 육조께서 오로지 성품을 보는 것만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다만 (공부하는 이들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을 뿐 화두를 보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후세의 조사들은 마음을 보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마음으로 죽지 못하고 애벌갈이에 그쳤으며 대개는 거짓 기틀을 농할 뿐이었다.

每每數他人珍寶 作自己家珍
매매수타인진보 작자기가진
便不得不 各立門庭 各出手眼
변부득불 각위문정 각출수안
才令學人看話頭
재령학인간화두
話頭很多 如萬法歸一 一歸何處
화두한다 여만법귀일 일귀하처
父母未生前 如何是我本來面目 等等
부모미생전 여하시아본래면목 등등
但 以念不是誰 爲最普通
단 이념불시수 위최보통

(그들은) 매양 옛 선사의 보물이나 헤아리면서 그것을 제집의 보물로 삼았으니

저마다 가문의 기치를 세우고 저마다 방편을 지어 학인으로 하여금 화두를 보게하였다.

화두는 매우 많았다. 저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하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같은것, '부모 태어나기전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와 같은것 등등인데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게 가장 보편적인 화두일 것이다.

話就是說話 頭就是說話之前
심마규화두 화취시설화 두취시설화지전
如念阿彌陀佛是句話 未念之前就是話頭
여념아미타불시구화 미념지전취시화두
所謂話頭 卽是一念未生之際
소위화두 즉시일념미생지제
一念才生 已成話尾
일념재생 이성화미
這一念未生之際 叫作不生
저일념미생지제 규작불생
不掉擧 不昏沈 不着靜 不落空 叫作不滅
불도거 불혼침 불착정 불락공 규작불멸

무엇을 화두라 부르는가. 화는 말이고 두는 말하기 전이니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말은 화요 이를 염하기 전은 두다.

이른바 화두란 곧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말함이니 한생각 일어나면 이미 화미를 이룬다.

저 한생각 일어나기 전을 상없는 자리라 부르니 흔들리지 않고 혼침하지 않고 고요에 집착하지 않고 공에 떨어지지 않아 이를 '나지 않음에 멸함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時時刻刻 單單的的 一念回光返照
시시각각 단단적적 일념회광반조
這不生不滅 就叫作看話頭 或照顧話頭
저불생불멸 취규작간화두 혹조고화두
看話頭 先要發疑情
간화두 선요발의정
疑情是看話頭的根本
의정시간화두적근상
何謂疑情 如問念佛的是誰 人人都知道
하위의정 여문염불적시수 인인도지도
是自己念
시자기념

찰나찰나에 오로지 사무치게 한생각 되돌려 비춰 보나니

저 생멸없는 자리를 일러 화두를 본다. 혹은 되돌려 화두를 비춰 본다고 한다.

화두를 보려면 먼저 의정이 발현해야 한다.

의정이 화두를 보는 지광이 이다.

어떤 것을 의정이라 하는가.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할때에 사람마다 모두 자기가 염하는 것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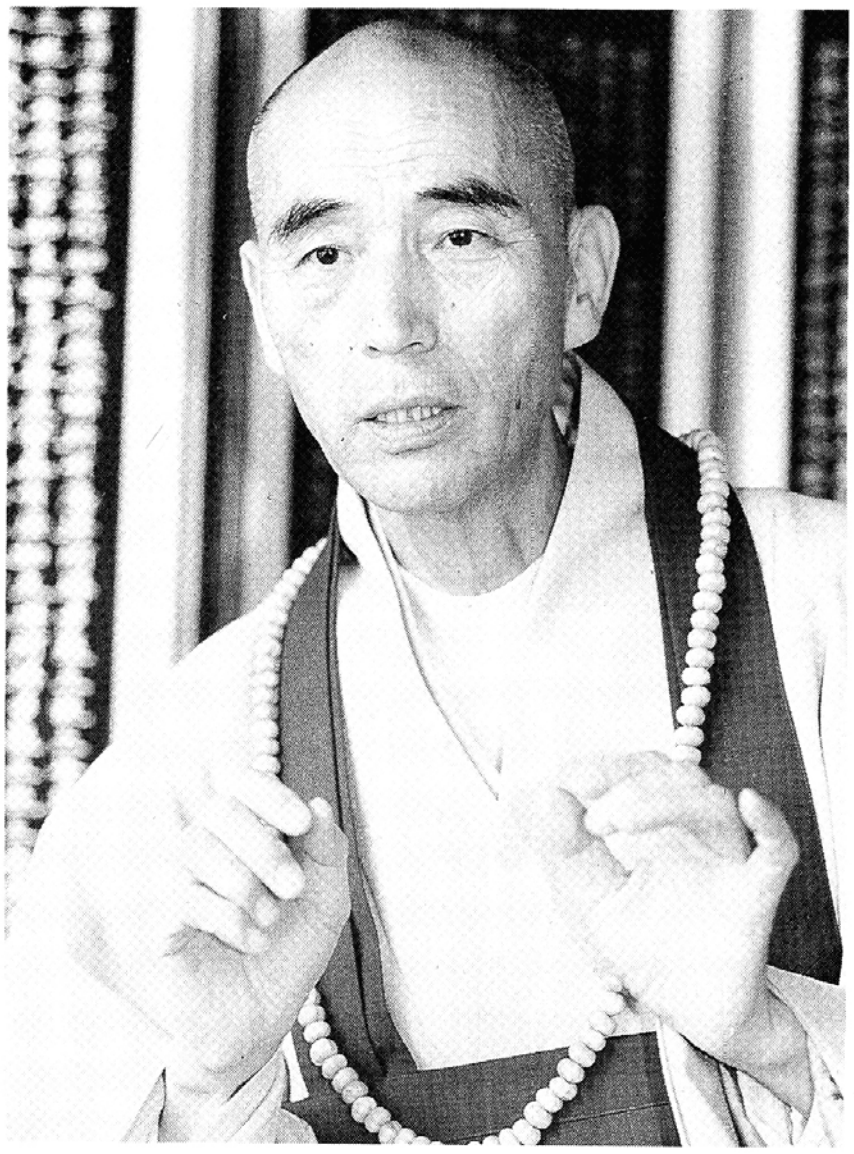
龍眼

"화두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말하니 한 생각 일어나면 이미 화미를 이룬다"

★ 지상법석

"내가 원을 세운 순간

법인스님 〈각원사 주지〉



약력
- 1931년 충무 生
- 46년 해인사로 출가
- 마산공고를 나와 해인대학 동국대 성균관대서 철학 수업
- 77년 천안 각원사 창건 및 청동대불 조성
- 87년 日, 대동문화대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 논문집 〈서산대사의 선가 귀감 연구〉 등 다수

어느새 50년이 지났습니다.

1946년 10월 15일에 출가하여 어느새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제자가 된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가하여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세월동안 얼마나 수행하고 중생교화에 힘썼는가 그리고 성불의 공덕을 얼마나 쌓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50년, 반세기라는 시간을 지내고 일생의 염원으로 추진중인 불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야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침 각원사 대웅보전이 목조건물로는 국내최대의 규모로 지어져 그 낙성식을 지난 10월 15일에 봉행했는데 저는 그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 민족의 평화를 찾게해 달라고 말입니다. 태조산 각원사의 청동대불과 대웅보전이 국내에서 최고로 커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지요. 각원사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남북의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부처님 법을 배우는 동포애의 도량이고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기원하는

"사홍서원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공통적 서원이니 불자면 지켜야 할 불교신행의 근본"

통일염원 기도도량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을 기원하는 도량의 부처님과 법당이 제일 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상이 크고 법당이 큰 것 보다는 기도하는 마음, 다시말해 염원의 정성이 더 커야 하겠지만 그렇게하기 위해 큰 법당을 짓고 큰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키워 보자는 뜻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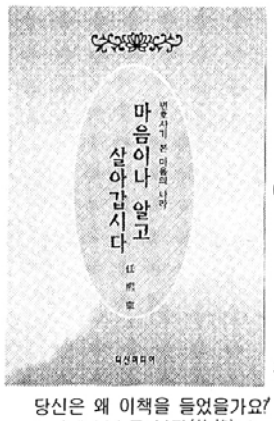
50년전 나는 단잠을 주무시는 어머니를 두고 새벽길을 재촉해 출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스님으로부터 나의 사주에 명이 짧아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가는 허용했지만 소위 '대처승'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구승으로 출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탁발을 다니는 한 노스님을 만나서 나의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그 노스님은 "결혼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수명장수나 생활의 방편을 도모하기 위한 출가는 절대로 출가라할 수 없는 것이다. 출가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닦아 도를 이루려는 것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어 여러 중생을 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력이 높으신 큰스님들이 많으니 출가를 하려거든 제대로하고 공부도 제대로 해야한다. 그러니 너도 제대로 출가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의견을 못따르는 죄송함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미 출가하기로 먹은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충무 고향집을 나와서 해인사가 있는 합천땅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해인사 계곡을 들어가는데 그 풍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홍류동 계곡은 눈이 쌓여 있었는데 그 설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속으로 나는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법을 배우려는 출가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말입니다. 가다가 고운 최치원선생의 정자에서 쉬었는데 안내하시는 스님이 최치원의 글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한번 청산에 들어가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으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심정과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어린 마음에 그 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고 승려로서의 공부를 다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출가의 길에서 본 고운 최치원의 글귀에 감명받아 세웠던 결심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몸이야 산을 내려와 공부도 하고 불사도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산의 수도승으로 있으니 그 결심이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서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소원을 갖습니다. 소원이란 무엇인가.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바랄것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있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좀 비약해서 말하면 소원, 바라는 것

변호사가 본 마음의 나라

마음이나 알고 살아갑시다
임희동 지음



"어디서 왔소?"
이것이 지금도 나의 '화두(話頭)'입니다.

정가 : 5,000원

당신은 왜 이책을 들었을가요?
생각해 볼수록 복잡(複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진리(眞理)'는 의외로 간단하다' 고 합니다.
'세상(世上)의 모든 일은 우연(偶緣)이 아니다' '깊고 깊은 뜻(意, 의)이 있다' 고…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들게 했을까?'
'나의 손(手, 수)이 이 책을 들었다'
'나의 눈(眼, 안)이 보았으니까 이 책을 들었다'
'나의 발(足, 족)이 이곳에 걸어왔으니까, 이 책을 들게 되었다'
이것이 정답(正答)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발 행 처 다산미디어 마포구 용강동 494-85 T)718-1751~2 F)716-9945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부적이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진연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벽결부
▲팔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꿈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살아있는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 박지명 지음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영스님 지음 값 7,000원

출판의 소리 전화 : (02)444-3575,5310 팩스 : (02)3436-1064
종로서적 전화 : (02)732-5381 팩스 : (02)732-620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10월 21일 ~ 11월 19일
■ 개강일시 : 1996년 11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심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 국반판 256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증보판 : 국반판 352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일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지상법석

인연도 숙성 됩니다"

"서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성불의 뿌리 키우는 과정입니다"

은 우리가 살아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생각 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뭘 해야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의 대학 가는 것을 봐야하고 그 자녀를 뒷바라지 해야하고 또 집을 사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소원을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서원이나 발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서원(誓願)이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 하는 것이고 발원(發願)은 말 그대로 원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먼저 발원을 하고 다시 서원을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를 해야 합니다. 늘 외우는 사홍서원은 불자이면 누구나 한결같이 세우고 실천해야할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홍서원을 총원(總願)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이 공통적으로 갖는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다 제도 하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워 불도를 이루겠다는 것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행입니다. 우리도 이 사홍서원의 실천을 불교신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같이 큰 원만을 세우고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일 수는 없습니다. 원을 세우는데도 근기를 생각치 않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공부에 따라 작은 서원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발원을 해도 그것이 실천될 수 없으면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지나친 원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절에 나온 사람은 반야심경을 다 외우는 것을 발원해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 외우고 나면 그 뜻을 이해하는데 원을 세우고 법문도 듣고 책도 읽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발원하고 서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는 것이 보살에 이르고 부처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발심이란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면 다시 세우는 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이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결같이 실천해 나가는 것, 마침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보살님들이 각기 원을 세우고 (이걸 別願이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기에 우리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원이 거룩하고 감사하게도 한결같이 중생의 구제로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거룩한 서원을 세워 두고 '나는 이런 원을 세웠으니 언젠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믿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원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노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자 여러분은 대부분 오계를 수지 하셨을 겁니다.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도 다섯가지의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켜 블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인 것입니다. 그 서원의 굳은 마음을 보이기 위해 살을 태우는 아픔까지 감내하는 연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비의 자국이 다 없어지기도 전에 다섯가지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원은 산산히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근기가 약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불법에 귀의하는 마음이면 오계를 수지할 마음도 갖춰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계의 항목들을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데 있어 무조건 불살생을 강요하면 그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죽음에 처한 목숨을 최선을 다해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지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최대한의 노력이 계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불음주의 계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님들이야 당연히 불음주를 해야겠지만 재가자들은 어려움이 큰 것이 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지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을 꼭 마셔야 할 일이 있으면 마시되 이성을 잃어서는 안되고 그 술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만큼의 음주로 불음주의 계를 지키는 것도 불자로서 한 걸음 앞장선 자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세우되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간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노력의 삶이 바로 불자의 삶이고 성불의 뿌리를 키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세우는 이 원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놀랍게도 많은 힘을 줍니다. 더러는 자신이 놀랄 정도로 큰 힘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피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나는 해인사에 살던 어린때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리란 원을 세우고 일년간 기도를 한적이 있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인연이 그 원을 이뤄 주더군요. 그런데 그 인연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원을 세운 순간에 그 인연의 씨앗도 함께 성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을 세우고 매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것이 이뤄질 인연도 숙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문을 넘어 출가 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무상정등정각의 새벽별이 무량의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그 인연의 만남, 바로 그 자리가 서원이 이뤄지는 열락의 잔치마당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각원사 불사를 하며 절실히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삼보에 귀의 하는 것에서 이미 서원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실천수행해 가는 과정과정에서 좋은 서원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완성이 곧 사회 국가 나아가 중생계의 완성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의 서원을 들어주기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루고야 말겠다' 믿음·노력·실천 없으면 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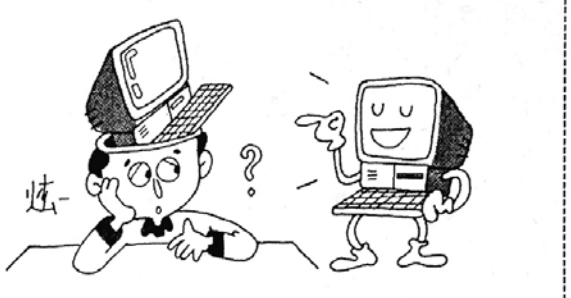
"초발심 변하면 다시 세우는 원도 쉽게 무너져"

살아가며 갖는 여러 소원들도 중요하지만 불자로서 하나의 발원을 하고 서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생노병사의 큰 의문을 풀기위해 성을 넘어 출가하시는 대목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출가의 마음이 부처님의 서원 그 자체입니다. 생노병사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초월, 즉 해탈하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었고 그분은 6년의 고행으로 마침내 그 서원을 이뤄 정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 보살님들도 다 서원을 세우시고 그 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살행을 하시는 분들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수천안으로 중생들을 제도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고 48가지의 큰 원으로 중생을 구제 하겠다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지옥계의 중생마저 다 성불하도록 한 후에 부처가 되겠다는 비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서원이야말로 법계 중생의 일체적인 성불을 향한 커다란 서원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그러한 원을 세우고 이루려는 맹

>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에 이미 서원의 삶 시작됐으니 공부쌓아 결실 맺으세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1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8)

모든 것의 근원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 나왔듯이 마음의 진공에서 '我' '수상행식' 생겨

물리학은 '색(色)'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에 눈에 보이는 '색'과 '물리적 진공'과의 관계를 밝히므로써 반야심경의 내용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공'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미흡한 데가 있다. 경전의 첫머리에서 말하기를 반야로 비추어 볼 때 '오온이 개공'이라 하였으니 깨닫기 전에는 '공'을 관해 아무리 분별지로 이해 한다고 하더라도 '공'을 체득할 수 없겠지만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길을 걷는 사람이 지도(地圖)를 갖고 있는 것만큼 '공'을 깨닫는데 도움은 될 것이다. 적어도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대상이 아닐지라도 '물리적 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에 관해 계속 접근해 보기로 하자. '아'도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음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번엔 '아'의 바탕이 되는 마음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마음은 의식(意識)과 무의식(無意識)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의식'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끊임없이 간여하는 '무의식'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6식을 뜻하고 무의식은 제7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불교에서 말하는 제8식과 그것을 넘어선 일체 마음을 모두 포함하여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기로 하자.

사람의 의식구조는 컴퓨터와 너무나 흡사하다.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따라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그렇지 않다. 과거의 경험과 주위환경및 받은 교육에 의해 의식구조가 거의 결정된다. 마치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명령체계에 따라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듯이 사람도 무의식에 기록된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된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격과 습성을 지니게 된다. 버터와 치즈에 맛들린 사람과 된장과 김치에 맛들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기 마련이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다르면 다른 답을 주듯이 무의식에 깔린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도록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도록 환경과 교육에 의해 무의식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타고난 유전형질에 따라 성격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DNA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사람은 정밀한 컴퓨터에 불과할까? 유전자와 무의식에 기록된 정보가 다르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사람도 컴퓨터와 마찬가지임에 틀림이 없다.

한 사람에게서 그가 받은 교육의 내용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어떻게 될까? 의식과 무의식속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마치 일정한 공간에서 물질을 다 없애면 물리적 진공이 남듯이 사람에게서도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면 정신적 진공이 남지 않을까? '아'가 기억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아'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불교에서는 '아공'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벗어던진 이 '아'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일체의 욕망, 환경과 교육및 경험에 의해 물들어진 것을 벗어난 '아'는 물리적 진공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도 없이 글자 그대로 마음이 비었다는 뜻이다. 텅비었으니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것도 없다.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빈 마음'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도 없다는 뜻이다.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물리적 진공'에서 우주가 나왔듯이 마음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는 '마음의 진공'에서 '아'가 나와서 마음과 수상행식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도 마음도 없다면 그것을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주'와 '아'의 근본은 분별지로 헤아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인 것이다. 적어도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러한 뜻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 역	주 소	전 화	팩 스
부 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 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 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 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 주	제주시 이동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 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 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 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141-3	0361)241-0633	
영 주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3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 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 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 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 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럭키APT 810-902	344)912-2323	
강 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경전

벽화를 통해 경전을 읽는다

경전의 구절이나 내용에 맞게 벽화나 사진을 결합시켜 경전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석가모니불 500대원

지장경

장수멸죄경

완전 칼라판

모든 사진을 칼라로 처리해 경전을 더욱 알기 쉽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천수경 · 관세음보살보문품(근간)
불 · 보살의 원력과 발원문 (근간)

화림 엮음/신국판 칼라화보/
값 각권 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고은 불교대하소설



바다 건너 누가 있으리

상수의 장례는 그의 염원대로 바다 건너 그 어디메에 있는 여덟 모골의 섬에 실려 보내는 것으로 되었다. 그 섬에 관세음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관세음보살은 그토록 바다 건너의 먼 곳에 머물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런 보살은 보살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일까?

아닐 터이다.

아닐 터이다.

보살이란 저 혼자 있을 때는 도무지 허깨비인 것이다. 보살이야말로 중생의 곳에서 그 중생들 속에 있을 때 보살이 아니겠는가.

그런 보살이 중생의 하염없는 벗과 이웃이다가 중생 그 자체가 되고 중생의 괴로움이 되어 마침내 그것을 벗어나는 자비의 생명체로 하여금 보살과 중생의 이름이 없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중생을 품고 사는 것이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그 소리를 보는 것이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일이야말로 그 소리와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어찌 이런 절절한 보살의 자비만이겠는가.

저 남방의 한 은거지에서는 건계(乾季)가 다할 무렵의 연한 차잎의 그 여린 순을 따서 한 덩어리씩 뭉쳐 진흙 가운데 파묻어버린다.

올해의 것이라 해서 올해가 다하기 전에 꺼내어 차를 달이는 노릇은 경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니 1년 뒤에도 그것을 꺼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 버린다. 5년도 10년도 넘겨서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차잎을 따던 소녀가 장차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은 늙수구레한 아낙이 되었을 때 실로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떠오른 기억 속의 차잎 덩어리를 파보았다.

거기에서 거의 흙이 되다시피 철저하게 발효된 차를 파내어 우선 코에 대본즉 흙냄새 밖에 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차를 끓여 한 모금 마셔본즉 그 차맛이야말로 어느 차맛에 견줄 수 없게 그윽하였다.

그런데 그런 차는 혀의 미각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맛을 귀로 듣는 경지로 되어야 한다.

차의 향기를 귀로 듣다니! 이 얼마나 고도의 일이겠는가.

이처럼 세상의 소리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는 다할 수 없어서인지 그 소리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일이야말로 자비의 행위 첫걸음 일러라.

바로 그런 관세음보살이야말로 중생 가운데 있음이 아닌가.

그런데 무욕도 바다 아득히 먼 곳의 그 어디메에 여덟모골의 섬이 떠 있고 그 섬에 살고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 한다면 어떻게 중생들이 먼 곳의 그 보살에게 그들 자신의 소리를 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자비, 그것도 커다란 자비를 근본서원한 보살이 아니던가.

그래서 중생은 그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면 어느덧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되는 것이다.

서방정토의 아미타불 의편에 서서 그 아미타불의 교화를 돕는 한편 그 보살은 천가지 만가지 관세음보살로 화신해서 천수관음(千手觀音) 11면관음(十一面觀音) 32면관음(三十二面觀音)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극이야말로 궁극의 보리(菩提)를 맞이하는 첫걸음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수는 그가 살아서 관세음보살의 섬에 건너가고자 하였다. 여덟모골로 된 그 아무도 없는 섬. 그러다가 홀연히 나타나서 그의 눈과 그의 귀는 진작 멀고 가까움을 여읜 나머지 10만억국토의 이쪽에서 가고 있는 중생을 맞이할 수 있음이 아닌가.

그럴진대 바다 건너 그 어디메에 있다는 보타락가의 섬이야말로 한번 건너가 보아야 할 하나의 궁극이 아니겠는가.

중생은 극(極)에 다달아야 한다. 즐거움의 극, 괴로움 슬픔 아픔의 극에 다달아보아야 한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모자라 보는 것이다
보살은 혼자 있을 때는 허깨비이다

"그렇게 둘러대는 수작은 또 무슨 설미친 오소리 소리인가."

"해가 언제 떴다고 지금 해가 진다고 말하는가."

"해라는 것이 헛것일세."

이런 속절없는 말놀이가 있는 것도 무욕도의 자유였다.

이제 상수의 시신 앞몸은 무욕도의 새벽 생물로 씻어내어 거기에 얇은 무명천을 한번 감았다. 굳이 관에 넣을 것도 없었다.

가 오빠의 시신이 떠나는 것을 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슬픔 때문이기보다 우녀가 그녀한테 시킨 노릇이기도 하였다. 세속의 오누이라는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섬으로 가는 오라버니의 서원을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지 말자는 것이었다.

"자이" 라고 대해가 큰 소리로 바다 위로 삿대질을 해서 배를 움직였다. 대해 효영 명호가 탄 배에 이끌려서 상수의 작은 배가 주인 뒤를 따라가는 중송아지처럼 잘 나아갔다.

파도가 일렁거렸으나 배의 앞이 그런 일렁거림을 뚫었다.

무욕도의 대중은 그 자리에 선채 차츰 멀어져가는 상수의 바다 위 장례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갈매기 몇마리가 그 배의 행렬을 따라 날고 있었다.

"진정 무욕도는 관음도량이었던 바가 되살아났어요. 상수님께서 새 도량을 열고 가시는 것이오" 라고 우녀가 그녀답지 않게 눈에 눈물을 조금 담고 말하였다.

어느새 상을행자도 슬며시 벌채 뒤에서 나타나 우녀 옆에서 젖은 눈으로 상수의 배가 저만치 한 점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해들은 난바다에서 더 깊이 먼 바다를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어디에 여덟모골의 섬이… 보타락가의 섬이 있단 말인가? 내 싹은 갈치눈으로 보자니 어디에도 그 따위 섬이 보이지 않는단 말일세."

그때 효영이 나섰다. 이제까지 한번도 입을 열지 않은 슬픔으로 친구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섬이 있거나 없거나… 상수는 그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해가 그런 말에 약간 굼떴다.

비장한 서원 있어야 먼곳에서 기다리는 보살과 만날 수 있다

이들 예성강 어귀에서 한꺼번에 온 사람들은 누구 하나 수계식을 마친 승니(僧尼)가 아니었다. 아니 인담이나 우녀는 이제 그들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새삼 승속(僧俗)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범망경(梵網經))이란 개미들이 물어가도 되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위 아래가 생기고 높낮이가 생기는 것 자체가 요망한 노릇이야… 더구나 사분률(四分律)이나 팟이나 그런 것으로 법통의 바탕으로 삼는 일 따위는 한갖 매미소리에 지나지 않는지도 몰라."

"그 무슨 다람쥐 잠꼬대인가."

"아무튼… 그렇다는 말일세."

그 시신을 태울 자그마한 배를 엮었다. 그 배 위에 시신을 묶어 고정시켰다.

무욕도 대중이 다 바닷가의 벌채 마당에 모였다. 종을 쳤다. 누가 그 종치는 소리를 헤아리고 있겠는가. 그 종소리가 멈춘 뒤 인담이 입을 열었다.

"가시게."

우녀도 한 마디 하였다.

"잘 가시오."

심지어 소년행자 우식과 만우도 한 마디 하였다. "잘 가십시요" 라고.

그런데 배에 타고 상수의 작은 배를 이끌고 가는 일은 대해와 효영 명호가 맡았다.

상을행자는 차라리 벌채 모퉁이로 돌아가 오빠의 시신이 떠나는 것을 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슬픔 때문이기보다 우녀가 그녀한테 시킨 노릇이기도 하였다. 세속의 오누이라는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섬으로 가는 오라버니의 서원을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지 말자는 것이었다.

"자이" 라고 대해가 큰 소리로 바다 위로 삿대질을 해서 배를 움직였다. 대해 효영 명호가 탄 배에 이끌려서 상수의 작은 배가 주인 뒤를 따라가는 중송아지처럼 잘 나아갔다.

파도가 일렁거렸으나 배의 앞이 그런 일렁거림을 뚫었다.

무욕도의 대중은 그 자리에 선채 차츰 멀어져가는 상수의 바다 위 장례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갈매기 몇마리가 그 배의 행렬을 따라 날고 있었다.

"진정 무욕도는 관음도량이었던 바가 되살아났어요. 상수님께서 새 도량을 열고 가시는 것이오" 라고 우녀가 그녀답지 않게 눈에 눈물을 조금 담고 말하였다.

어느새 상을행자도 슬며시 벌채 뒤에서 나타나 우녀 옆에서 젖은 눈으로 상수의 배가 저만치 한 점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해들은 난바다에서 더 깊이 먼 바다를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어디에 여덟모골의 섬이… 보타락가의 섬이 있단 말인가? 내 싹은 갈치눈으로 보자니 어디에도 그 따위 섬이 보이지 않는단 말일세."

그때 효영이 나섰다. 이제까지 한번도 입을 열지 않은 슬픔으로 친구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섬이 있거나 없거나… 상수는 그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해가 그런 말에 약간 굼떴다.

이제까지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잘 왔네. 잘 왔네" 라고 환영할 때 거기에 건너간 중생은 이미 중생의 옷을 벗은 보살의 반열(班列)에 들음이 된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얼굴에는 이런 반가움이 아니다. 아니, 그로서는 이승의 무욕도에서 만난 우녀가 저승의 관음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중생에 대한 노여움을 품은 얼굴도 있고 슬프디 슬픈 얼굴도 있다. 그야말로 중생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인 얼굴인 것이다. 그래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40개의 손에는 각각 그 손끝에 눈이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런 관세음보살이 항상 중생의 몸 가까이 있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다 건너 수광선의 어딘가에 떠있는 까마득한 섬에 혼자 머물고 있기도 한 것이다.

상수야말로 바로 그토록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은 새로운 관세음보살을 만나기를 그의 엄렬한 서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살아서 그 보살의 섬에 가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무욕도는 상수의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가 입적한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무욕도를 둘러싼 바다 전체가 커다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파도들이 치솟아올라 아단을 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사나운 바다에 대고 상수의 시신을 태운 배를 띄울 수 없었다.

"하루이틀 더 있다 가려는 모양일세" 라고 대해가 상수의 누이 상을행자에게 말하였다.

명호가 말하였다.

"이 부근에서 작별하십시다. 우리도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배 위에서는 무욕도나 육지의 어느 곳도 보이지 않는 난바다의 한복판이었다. 뒤따라오던 충실한 갈매기들도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섬은 끝내 없었다.

아무도 더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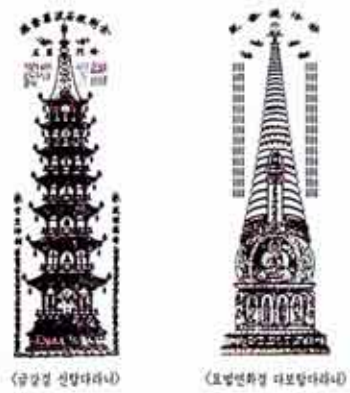
대해가 그들이 탄 배와 상수의 시신을 태운 작은 배를 연결시킨 밧줄을 풀어버렸다. 상수의 배는 혼자 파도에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 조향숙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프랑켄슈타인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 × (세로)168㎝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 이 氣(기)는 실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물론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머물되면, 악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항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드라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전심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깊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시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을 복사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 - 3740

■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 - 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 - 9490, 39 - 1906,
야간(0342)706 - 30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14k 0.5MC 특수도금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100회 연재 '수미산' 현장 간월암 문학기행



◇작가 고은씨가 소설 '수미산'의 무대인 간월암 법당에서 '우주와 나'를 주제로 불교와 문학에 대해 열강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간월암' 하나가 그대로 섬인 간월도 전경. 피안도 연화대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누가 주체이고 객체 인가"

작가 고은 특별강연 '우주와 나' 요지

우리는 만공스님의 작은 섬에 함께 왔습니다. 오늘 작은 달밤의 위성을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간월암에 함께 온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일생을 세 마디로 축약하면 나서 만나고 죽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이겠습니까. 고도의 3차원 이전인 2차원의 세계에 만남이 있습니다. 또 자기와 뜻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간월도는 속명이 월면(月面)인 만공스님이 이곳으로 건너와서 달을 바라보았던 섬입니다. '견월망지(見月忘指)'. 우리 선가에서는 "달을 보고 손가락 끝은 잊어라"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실제 힘듭니다. 달이 목적이고 손가락이 수단 방편이 되지 않습니다. 달과 손가락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피안을 건너가면 뗏목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올것을 생각해 뗏목은 버리지 말아야 하고, 결국 뗏목도 피안이 됩니다.

너와 나의 대화가 진리를 만든 것입니다. 진리는 나혼자 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와 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니체는 "진리는 한사람과 한사람의 대화로써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싯달타는 도를 깨쳤습니다. 하필 싯달타가 깨달을 그 때 환한 빛과 공간이 하나로 만나서 불법이 크게 시작됩니다. 이처럼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극단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극단까지 가야만 비로소 극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태극(太極)을 가야만 무극(無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병폐인 소승(小乘) 대승(大乘)따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 두가지를 다 껴안을 새로운 신승(新乘)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중도로 가야합니다. 아울러야 합니다. 아울러야 새로운 불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소승에서 얘기하는 〈구사론〉과 대승에서 얘기하는 〈법화경〉〈열반경〉이 한통속이어야 합니다.

오늘밤 이자리는 가을입니다. 막대기로 쳐도 감동받게 되는 계절입니다. 여기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앞에서 '나라는 인간 개체는 얼마나 작은가'하고 실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구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계속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자아 '나'를 알기위해서 우주의 생성 변화 진화라고 하는 우주적인 체험에 심취했던 아인슈타인은 "현대과학에서 결여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그것은 불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교속에서 들여다보고 자기이론이나 현대물리학의 가능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리일 뿐입니다. 우주론에 의해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가 설계될 수있다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우주를 만나는 시대가 옵니다. 〈화엄경〉은 우주는 검다고 했습니다. 〈천자문〉에도 하늘천(天)따지(地) 검을현(玄) 누루황(黃)입니다. 우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주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미산은 무엇입니까. 고대인도에서 발생해서 산과 열대지방을 반영시킨 관념물입니다. 중생이 사는 곳에서 부처가 되거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 바다 남섬부주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사방에 펼쳐있는 상태입니다. 수미산 중심으로 퍼져있는 우주가 십억개나 됩니다.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무색계는 없는것 같이 있는 곳입니다. 허공계에 뭔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은 천계에 가면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 즉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축으로 이런 것이 사방에 퍼져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중국 운문선사는 긴 질문에 항상 딱 한마디만 답하기로 유명했습니다.그것이 '일자관(一字關)'입니다. 운문선사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도(道) 법(法) 진리(眞理)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운문은 "거(去)"라고 말합니다.

불법승(佛法僧) 삼보에서 법은 무엇입니까. 법(法)자를 한자로 보면물 수(水)에 갈 거(去)입니다. 그저 물흐르는대로 가는것입니다. 운문은 법을 묻는 질문에 그저 "가거라"한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윤회하는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소설 수미산을 쓰면서 우주적인 자아 우주속의 나를 넘나들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망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꿔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소설 수미산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인담스님이라는 근본없는 사람을 냈습니다. 법사 은사도 없는 이른바 정통을 무시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고려시대 실존했던 담인스님이 꿈에 법계를 받았다고 전하는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리를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인'스님의 이름을 순서를 바꿔 '인담'이라고 했습니다. 당에 유학떠나려던 충남 당진바닷가에서 원효스님은 해골의 눈빛을 보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도 해골바가지 눈에서 푸른빛이 나와야 한다는 그것이 도라는 것입니다. 소설 수미산은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공간이 될때까지 부처님법 만나 함께 가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밤을 내부에 받아들여 자기 정화의 달밤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빈배에다 달빛 가득히 싣고 돌아오는 배처럼 오면 됩니다.

"진리는 나혼자 道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우러야 새로운 불법으로 나갑니다 '수미산'은 부처님법 만나 함께가는 도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과 함께했다.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이 고은씨를 반갑게 맞고 있다.

서울·부산등서 100명 동참

"달빛아래 욕심씻은 무욕도 정진"

덕숭총림 수덕사 참배 방장 원담스님 친견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26일~27일(1박2일) 인기연재 대하소설 '수미산'의 현장인 간월암을 작가 고은선생님과 화가 조향숙화백과 함께 떠났다.

연재 100회째이기도 해 더욱 뜻깊었던 이날 문학기행에는 서울 부산 애독자 100명이 동참했고 본사 김광삼사장등 임직원이 자리했다.

섬 그자체가 곧 절인 곳. 무욕도라고도 불리우는 간월암은 진정 욕심대신 보름달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범종과 산신각 불사가 한창이었다. 간월암이 자리한 간월도는 연꽃 한송이가 피어있다고 해서 연화대라고도 했고, 백제때는 피안도라 일컬어졌다고 전한다.

관세음보살이 본존으로 모셔진 20여평의 법당에는 초막법당을 창건한 무학스님과 은사 나옹·지공스님, 41년 지금의 사세로 중창한 만공스님과 운력했던 벽초스님의 벽화가 봉안돼 있다.

26일 밤 10시40분 시작된 문학기행 행사는 간월암 주지 원융스님과 본사 김광삼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고은선생님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인간의 존재와 우주, 인연과 윤회, 만남과 깨달음에 대한 고은선생님의 열강은 26일 하루밤을 지새고 27일 새벽을 깨웠다.

불교와 문학을 사랑하는 동참자들은 욕심을 남김없이 비우려는듯 좌선과 기도로 철야정진했다. 서해 해돋이의 장관을 볼 수있는 곳 간월암. 산마루턱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밤새 욕심을 씻어내린 100여 보살과 거사들을 환하게 맞이했다.

27일 오전10시 만공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일행은 선종본찰인 덕숭총림 수덕사로 향했다. 경허 만공스님을 비롯한 역대 선사들의 손길이 닿았을 대웅전(국보49호) 기둥과 마루바닥에 100여명의 손길을 더 보탰다. 방장스님을 친견하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받아든 일행은 이어 주지 법장스님으로부터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전수받았다.

불교와 문학 그리고 대자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나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회향됐다.

서산=위영란 기자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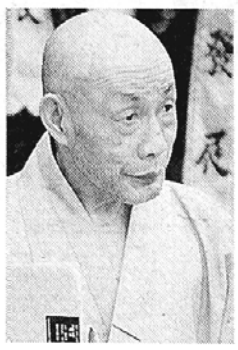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운제스님 불교학 연구 50년 결산

불교선집 '기원의 꽃' 완간



조선대·건국대 교수(사학)를 역임한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74)이 50여년간의 학문성과를 결산한 불교선집 〈기원(祇園)의 꽃〉(전 3권, 불교영상회보사 刊)을 완간했다. 운제스님은 이와함께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원효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원효연구원(가칭)을 오는 9일 발족시킬 예정이다.

고승편, 교리·사상편, 잡문편으로 구성된 〈기원의 꽃〉은 〈한국의 불교사상〉 〈유마경〉 등 10여권의 저서와 〈사기〉 등 30여권의 역서, 40여편의 논문 발표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정리하고 원효연구원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됐다.

〈기원의 꽃〉 제1권 '고승편'은 중국 한국의 고승 37인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한 불교인물사이다. 중국편에서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황벽희운까지 11인의 중국고승을 조명했으며 한국편에서는 신라 원광법사로부터 근세의 한용운스님까지 26인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했다. 이중 원효대사 대각국사 보조국사 태고보우국사 한용운스님은 각각 논문으로 비중있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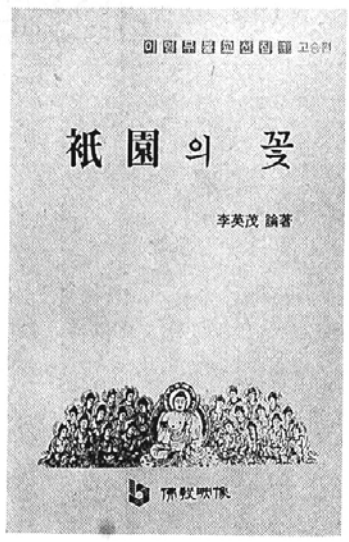
제2권 '교리·사상편'은 불교경전과 불교사상을 개관하면서 '대승불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제스님이 이번에 처음 청정한 세계의 구현을 제안한 재가불교운동의 강조는 원효사상의 부흥을 보는 듯하다.

제3권 '잡문편'은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안과 불교계 신문과 잡지, 대학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았다. '마음이 밝아야 세상도 밝아진다' '생사인

원효연구원 11월 9일 개원 기념
고승·사상·잡문편등 3권 펴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번역등 '눈길'

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싶다"면서 창립동기를 밝혔다. 원효사상등 불교사상 강좌와 세미나 개최, 논총발간, 유적조사 및 도서간행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게 될 원효연구원은 첫 사업으로 원효스님의 생애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담아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번역한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번역문과 논문 '천태종의 수행과 지관법(止觀法)'이 눈길을 끈다. 또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공존공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사상과 생활속의 자비행·신행을 통한 과를 벗으려면' '오늘을 사는 지혜' 등 49편의 불교시론을 통해 생활불교관을 제시했다.

한편 원효연구원 발족과 관련, 운제스님은 "민족의 성인인 원효성사의 위대한 사상을 통해 오늘날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상적 미아들에



◇운제스님의 학문활동을 결산한 불교선집 〈기원의 꽃〉 제1권 고승편.

〈한국불교통사〉의 번역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효연구원 이사장을 맡게 되는 운제스님은 〈원효사상〉등의 저서와 '원효의 인물과 사상' '원효대사 著 〈判比量論〉에 대한 고찰' 등 5편의 원효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원효사상 선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교선집 출판기념 및 원효연구원 발족기념 법회는 11월9일 오후 3시 경복궁 옆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02)723-0425

김재경 기자

출판학제

맹란자씨 첫 수필집 '빈배에 가득한 달빛'

지성·사유·헌신등 체험의 언어 49편





"배에는 달빛만이 가득하거니, 달빛만 가득하다면 그것으로 좋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혼자서 차오르는 달처럼 내 안에서 만월(滿月)을 이룩하고 싶었다. 저 무욕대비(無欲大悲)의 만월…."

수필가 맹란자씨(55세, 동양서숙 대표)의 불교와 동양학에 대한 탐구와 체험으로 가득찬 에세이집 〈빈배에 가득한 달빛〉(우리출판사 刊)이 나왔다.

저자는 '가을 풍경' '너무나도 짧은 우리들의 여름' '환지본처(還至本處)' '주역(周易) 산책' 등 총5장의 주제로 49편의 글을 통해 하심(下心)과 겸손으로 평생 중생제도에 힘쓰다 열반한 부처님과 소유(所有)가 범죄 같다는 간디의 무소유 정신에 고무되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방하착(放下着)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대 국문과와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료하고 연극계에서 기획 연출을 담당하다가 국어교사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인생 여정을 통해 얻은 진솔한 체험을 회화적인 시어들로 섬세하고 감칠맛 나게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1969년부터 〈신행불교〉〈법시〉〈금강〉〈여성불교〉 〈불광〉 등에 기고한 글도 함께 담았다.

장지현정사 두번째 시집 '늙은 산' 나와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진각종 장지현 정사(美 LA 진각종포교원 주교)가 두번째 시집 〈늙은 산〉(실천문학사 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승(僧)과 속(俗), 기억(고국과 고향에 대한)과 현재(미국 LA의)가 부딪히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표제작인 '늙은 산'은 늙을수록 깊어가는 아버지의 山을 통하여 인간이 귀착하게 될 삶의 마지막 정점을 묘사했다.

문학평론가 홍정선교수(인하대)는 이 시집에 대해 "그의 시를 읽으면 나와 너, 승과 속, 기쁨과 슬픔, 기억과 현재, 인간과 미물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부둥켜 앉는다"고 평했다.

밀교 알기쉽게 정리 '실천 지침서'



부처님이 깨달은 비밀스런 진리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밀교. 동방불교대학 정태혁 학장(전 동국대 교수)이 쓴 〈밀교의 세계〉는 신비스런 밀교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알기쉽게 소개한 개론서인 동시에 대승불교의 실천 지침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앞으로의 세계를 대승불교의 연화장 세계와 만다라의 세계로 보고 밀교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를 21세기를 떠받칠 새로운 사상으로 파악한다. 대승불교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밀교의 세계 | 정태혁 지음

화제의 책

는 밀교에 이르러 시대와 장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용, 승화시켜 나갔기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지구촌 시대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밀교가 사회구제를 표방하며 이전의 불교가 용인하지 않았던 재래신앙적인 요소를 불교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사상체계를 갖추고 탄생한 점도 이같은 전망을 갖게 한다.

〈고려원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 바 지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사
8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9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	우 학	좋은인연
10	위대한 자기의 발견	서 암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걸림없는 길(한길로 저)=봉인사·한길정진원을 창건한 故 한길로법사(1919~1996)의 유고집. '인신난득 불법난봉(人身難得 佛法難逢)' 등 29편의 글을 통해 수행과정에서 느낀 감회를 정리했다. 〈봉인사 비매품〉

▲소설 육조대사(한정섭 저)=중국의 초기 선종사상을 반소설체로 알기 쉽게 풀이한 입문서. 눈 속에서 팔을 끊어가면서 道를 구한 2조 혜가대사, 문둥병으로 사해를 유랑하다가 혜가대사를 만나 해탈자재한 3조 승찬대사, 14세의 어린 나이로 인가를 받은 4조 도신스님, 중국 특유의 선불교를 형성한 5조 홍인대사, 일자무식으로 열반경을 해설한 6조대사의 구





도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불교통신교육원 6천원〉

▲떠나는 자만이 인도를 꿈꿀 수 있다(임헌갑 저)=1993년 이후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 임헌갑의 인도 기행문. 인도의 아름다운 땅과 하늘, 욕심없이 삶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수행자들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그리고 있다. 〈엔터 1만원〉

▲동아시아의 양명학(최재목 저)=한·중·일 삼국 양명학의 발전과 변용을 분석한 연구서. 양명학은 명대 중기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교조화된 주자학적 학풍에 반기를 들고 '마음의 해방' 및 '마음의 실체론적 복권'을 역설하며 나온 새로운 사상이었다. 〈예문서원 6천8백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진흙소의 울음

〈진흙소의 울음〉(홍법원 刊)이란 책을 읽고 그 많은 법어들의 뜻이 깊고 깊어 다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그 중에서 참선곡(參禪曲)과 오도가(悟道歌)의 감동에 빠져 선사의 법어를 이해한대로 몇자 적어 볼까 한다.

경허 스님은 원래 속세의 성명은 송동욱(宋東旭)이요, 여산(礪山)사람으로 전주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성우(惺牛)요, 호는 경허(鏡虛)이다.

경허의 참선곡에 도시 몽중(都市夢中)이란 말이 제일 먼저 제시되어 있고 천만 고에 있었던 영웅호걸이 있다 하여도 한줌의 흙으로 북망산 무덤뿐이라 하였으니, 인생 무상을 일찍이 깨닫고 꿈이 아니냐는 자문자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우주의 변화무쌍한 생멸(生滅)의 법칙을 그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뜻을 순간의 꿈에 비유했던 것이다.

그렇다. 오늘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천하 모두를 소유하려 하니 그 얼마나 무모한 생(生)의 장난이란 말인가?

불법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생각하여 서로가 존중한다면 과욕에서 해탈되어 마음의 극락을 찾을 것이요, 평화의 세계를 이룰 것이니 이것 모두가 현실의 극락이 아니겠는가?

오도가에서 경허 선사는 현실을 탄식하며 그 누구도 그가 전하는 법어의 참뜻을 이해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많은 사람중 아무도 그의 옆에 없다 하였으니, 이는 실체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사방을 돌아보아도 없다 하며 저 대자연의 위대한 변화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봄이 되어 만산에 꽃이 활짝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 가을밤에 달은 밝고 바람만 맑기만 하다고 하며 생명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노래나 불렀다고 한다.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며 어두운 속세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탄식하였다.

경허 스님의 위대한 불법의 진리는 자연의 춘하추동



김 정 진
〈경북대 교수·윤리교육〉

"초목·기왓장 하나도 法華로다"
마음 닦는 공부 안내서 역할

이 변화무쌍함을 보면서도 중생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함과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경지를 이해 못하는 현실을 탄식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천지 자연의 삼라만상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는 이렇게 보았다. "초목 하나, 길가에 뒹구는 기왓장 하나, 자갈 하나 모두가 화엄(華嚴)이요, 법화(法華)로다. 내가 항상 설하나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이 곧 마음속 스스로의 부처지 원래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이다. 모든 묘한 이치가 마치 꿈에 연꽃이 핀 것을 깨달음과 같다"고 하였다.

아! 이 얼마나 값진 인생의 삶에 주는 선물이란 말인가?

늦은 가을, 이 책 한 권을 통해 값있는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전형필선생 문화인물선정기념 소장 국보·보물등 1백여점 공개

간송추모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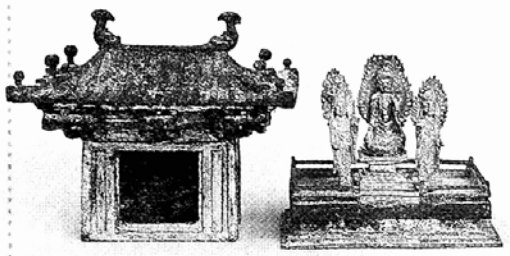
사리장엄구·탁본등 2백여점 려말·선초 불상 비교관람 기회

고려말 조선초 미술전

가을 끝자리…두 대형 전시

빼어나 국보급 불교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대형 미술전시회가 서울과 전주에서 각각 열리고 있다. 서울 간송미술관과 국립 전주박물관은 특별기획전 '간송추모특별전'과 '고려말 조선초의 미술展'을 마련 문화의 계절 가을의 막바지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오는 17일까지 미술관설립자 故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 11월의 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는 추모특별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각 11점, 서울시지정문화재 4점 등 미술관이 자랑하는 소장품과 일반인들의 관람이 불가능했던 문화재 등 1백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금동계미명삼존불(국보72호), 금동삼존불감(국보73호) 금동여래입상(보물284호) 금동보살입상(보물285호) 석조팔각당형부도(서울시문화재29호) 석조미륵불입상(서울시문화재30호)등은 섬세한 조각의 뛰어난 성보로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또한 미공개 작품인 '청화백자 정식명' 접시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보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고려청자, 훈민정음, 겸재 정선의 '문암관일출'도 보기드문 걸작이라 평가받는 문화재다.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방이동 보성고 강당에서는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간송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간송추모특별전에 선보이고 있는 금동삼존불감(국보 73호).

국립 전주박물관에서는 개관 6주년 기념으로 오는 24일까지 고려말과 조선초의 미술과 공예의 흐름을 살필수 있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 불상 사리장엄구 범종 향로 고문서 목판 활자인쇄 시경 어보 회화 도자기 등 135점과 탁본등 65점등을 합해 총 2백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고려말의 불상들은 잘록한 허리와 앉아있는 모습 등 관능미까지 느끼게 하는 자세와 화려한 장식에서 중국 원나라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한 라마불교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수 있는데 비해 조선초 불상들은 소박한 장식과 단순한 신체묘사 등 조선의 특징을 지닌 불상들로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불화 청자 금속공예 나전칠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족중심의 화려하고 세련된 양식에서 단순화되고 소박하며 다소 정형화된 모습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고려말과 조선초의 차이는 미술의 주요 수요층과 시대를 주도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소망을 담아 금강산 월출봉에 묻었던 이성계발원사리구, 이성계의 호적원본(국보 131호)등이 전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숙〉



◇고려말 조선초 미술전에 나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불교문학 현상공모

8개 부문 440여편 접수

'96 문학의 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학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1억3천만원 고료 불교문학현상공모'에 총 440여편이 응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0월 31일까지 도착한 응모작들을 집계한 것으로 30일자 우편소인이 찍힌 도착분이 추가로 확인되는 11월 3일경 응모 작품수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40여편중 장편소설 25편, 중·단편소설 80여편, 시 2백여편, 시조 50여편, 희곡 15편, 시나리오 30여편, 평론 15편, 동화 15편 등으로 전 부문에 걸쳐 고루 응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작등 심사발표는 11월 30일 개별통보및 조계종 총무원청사 3층 게시판에 공고하며 불교계 신문에 게재한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지도' 출간

전국 곳곳 '문학 산실' 한눈에

대표문인 7백여명 생가·시비·작품배경 정리

교통편·관광지등 답사안내도

전국 각지에서 문향(文香)을 피우고 있는 많은 문화유적을 지도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유적지도가 나왔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문인들의 행적과 이야기를 담고 아울러 현장방문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인근의 관광지, 식당 등을 일러스트지도와 함께 수록한 테마 관광안내서 '한국문학지도'는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동국대 부설 한국문학연구소(소장 홍기삼)가 각 3백여쪽 두권으로 펴냈다(계몽사 刊).

'문학지도'는 정채봉 박지천 이근배 조병무 이문구 이종찬 임기중 이종대 장영우씨 등 문학전공자와 작가 등 58명이 지난 수개월간 전국 165개 시 군 구의 현지답사를 통해 시비(詩碑), 작고문인의 생가, 작품의 배경을 직접 취재 촬영했으며 문학유적을 바라보는 감회와 여정의 단상까지 담았다. 여기에 실린 인물은 총 7백여명.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는 각 지역의 대표문인들과 문학사적을 통시적으로 정리했다.

만해스님의 생가가 있는 홍성,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와 혼인한뒤 건립했다는 사자사터가 있는 익산, 이광수가 1944년부터 4년간 머물면서 작품을 집필했던 남양주 봉선사, 심훈이 불후의 명작을 썼던 당진 보경사, 김성동의 '만다라'의 배경인 천축사 등 명작의 고향이 되었던 절의 이름들도 여러개 등장한다.

특히 이 지도에 의하면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의 시비가 홍성뿐 아니라 성북동 심우장, 동국대, 백담사, 제주도, 지리산 화엄사 등 전국에 퍼져있어 김소월과 더불어 대표적인 민족시인임도 증명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이홍기 선화전

"탈속의 세계 표현"

16일까지 불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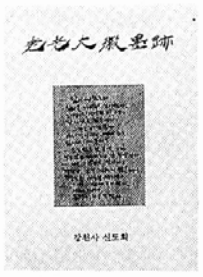
지난해 1월부터 송광사 '불일회보'의 표지를 아름다운 선화로 장식해 오고 있는 일지(一止) 이홍기(40)씨가 작품활동 17년만에 첫 개인전을 갖는다. '침묵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에는 '天地人三合'〈사진〉 '달마도' '히말리아 명상곡' '夢中夢' 등 작품 35점이 선보이고 있다.

이씨는 전통수묵화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지가 된 옛전적, 낡은 러닝셔츠와 조각보 등을 활용해 독특한 운필과 파격적인 표현으로 삶의 체취가 그대로 배여 있으면서도 순수하고 탈속한 선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대휘선사 묵적집 발간

강천사 신도회, 스님열반 4주기 추모

강천사 신도회(공동대표 이무위성 김연호)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노노당 대휘대종사(1907~1992)의 묵적(墨跡), 서예, 도예, 인보(印譜), 사진 등을 모아 전시하는 묵적전을 개최하고 묵적집 〈老老大徽墨跡〉을 펴 냈다. 스님의 열반4주기를 추모해 펴낸 이 묵적집에는 대휘스님이 평소 수행하는 틈틈히 쓴 '無盡藏' '금강경' 등 선필이 들어있다.



불심시심 〈67〉

등불처럼 파란 눈

客到蓍香寺 (객도황혼사)	황혼에 절 찾은 나그네
僧迎白月庭 (승영백월정)	스님은 달 뜨는 뜰에서 맞네
上房深夜話 (상방심야화)	깊은 밤 선방의 이야기
燈與眼俱青 (등여안구청)	등불과 눈빛 함께 파랗다

이 시는 무용(無用)대사(1651~1719)가 흥양군수에게 준 시이다. 대사의 휘는 수연(秀演)이요 자가 무용이었는데 승속간에 모두 무용이라 부르니, 그저 그대로 무용으로 호를 삼았다 한다. 그뿐 아니라 스님 자신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겸손으로 무용이라 하였던 것 같다. 어느 스님이 법어를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옛 사람이 말한 대답에는 모두가 지시하는 것이 있으나, 이 늙고 졸렬한 이는 재주가 없어 별로 지시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쓸모없는 자가 쓸모 없게 된 이유인가 보다" 하였다.

스님은 자신 스스로 쓸모없다 하였지만 당시의 법계에서는 그를 크게 썼다. 선문에만 밝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하여, 침굉선사에게 나아가 2년이 채 못되어 크게 이루니, 침굉이 "법계가 모두 너에게 있다" 하였고, 이어 백암선사를 만나니 "금강선문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다"며 인정하였다.

29세에 신불암에서 강석을 여니, 참학하려는 이가 몰려 강석이 좁았다 하니 스님의 경륜을 짐작할 만하다. 이렇게 시작된 강론이 69세의 나이로 입적하시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스님은 이렇듯 많은 강석을 열어 문도를 교화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한 문파를 형성하였다. 그뿐 아니라 속가와의 교분도 폭넓어 당시의 관리나 선비들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위의 시도 그러한 과정에서 쓰여진 한 편의 시이면서 대사 스스로 말했던 무용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라 하겠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군수가 스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어둠을 띠고 찾아온 손님이다. 스님은 달빛을 띠고 반갑게 마중을 나왔다. 시구의 대가 묘하다. 황혼의 절, 백월의 뜰이다. 해저녁의 일반적 경치이기는 하지만, 시어로 한 공간에 모아놓고 보면 좀더 별다른 의미를 준다.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밝음이다. 이쪽은 절이고 저쪽은 달이다. 명암 상하가 무리없이 맞물린 공간이다. 여기에 밤깊도록 나누는 대화이다. 등불과 눈이 아울러 파랗다. 파란 눈은 지혜의 눈이다. 두 사람의 의기와 의기가 투합됨을 은연중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이 시는 상황과 상황을 말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저 담박할 뿐이다. 무용이라는 스님의 당호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동요·동시—박준형군 산문 부문—강희준군

불교 어린이글짓기 최우수상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 주최 제15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현상공모에서 △동요 동시부문에 박준형(은석초등학교 4년)어린이의 '수계받던 날'이 △산문부문에서 강희준(은석초등학교 2년) 어린이의 '할머니의 염주'가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국 212개 사찰에서 총 31,532편이 응모되어 89편이 입상한 이번 글짓기 공모의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4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거행한다.

수계받던 날
〈동요·동시 최우수상〉

더운 여름날
봉암사 백운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누나 형 나 동생들
가파른 길 오르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는 우리 할머니
무엇을 기원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오르실까.

엄마는 아빠는
식구들을 살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고 빌고 계시겠지!
동생과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자고…
백운대에 도착하니
아찌타여래 석불이 우리보고
자비스런 미소 지으시네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과 같네.

내 마음이 항상
수계받던날 같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 할수 있으면
박준형 〈은석초등 4년〉

오옥진·김응서씨 무형문화재 각자장·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1일자로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각자장(刻字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106호로 신규지정하고 오옥진씨(61)를 보유자로 인정했다. 또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에는 김응서씨(49·국립국악원 단원)를 보유자로 인정했다.

오옥진씨는 증조부때부터 각자 제책 등을 해온 집안출신으로 1957년 국립중앙직업보도소 목공예과에서 교육을 받고 청주의 신학균씨에게 각자기능을 배웠다. 훈민정음등의 유명 판각을 복원했으며 독립기념관 현판도 제작했다. 한편 김응서씨는 올해 타계한 대금정악 기능보유자 고 김성진옹의 후계자로 지난 84년 전수조교 88년 보유자후보로 지정됐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디스크·관절염·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척추 ·골반 ·교정법
◆ 음양오행 ·기공 지압법
◆ 목·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중풍예방 시술 ·지도
전화 : 543-7306 • 711-4370
長三洙 척추교정·지압원

포교 할 사찰 구함
포교의 서원을 이루어갈 사찰을 구합니다.
▲ 희망지역 : 여주·용인·이천·원주 천안·평택·서산지역, 수원근교
연락처 : (0331)252-8484~5 39-1212-3

사찰안내
산세 수려청정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 23평, 요사채 : 20평
▣ 건평 :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 (062)525-4417 011-579-9865

탈종공고
주 소 : 경북 구미시 구평2동 127-14번지
사찰명 : 극 락 사
주 지 : 지혜(智慧)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 할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1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당 안내(최적지)
◆ 위치 : 동래 온천3동
◆ 평수 : 80평 ·방 7개
◆ 전세 : 8000만원
◆ 시설·비품대 가격 절충
◆ 수려한 정원
전 화 : 051)504-3172
핸드폰 : 011-853-3172

공양주 보살님
◆ 위례산 금성사 기도도량
◆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 40~60세 공양주 보살님
연락처 : 0417-61-8453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안내
▶ 위 치 : 충북 ▶ 요사채 : 20평
▶ 법 당 : 10평 ▶ 대 지 : 94평
▶ 가 격 : 7천5백만원
전화 : 0373)374-4459

明堂 사찰부지 묘지터(급매) ※ 업가로 매매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壬佛里)
■ 임야 : 33,500평
■ 가격 : 평당 7,500원(시세절반값, 일시불조정가)
■ 특징 :
▷ 2차선 도로 인접 (코란도 진입가. 도로에서 산까지 1km)
▷ 관광호수 근접, 88고속도 거창 IC에서 10분, 생수공장, 기도원, 회사연수원부지, 멧돼지목장(다용도산)
▷ 명당터(월계관형국)지질, 산세수려함
연락처 : (0343)71-7242 74-7775(산주)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작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기도·수양 하실분
◆ 1인1실 ·욕실완비
◆ 비용 : 월30만원·숙식제공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반석1리 불광산 정토원
전화 : 0338)71-8209·821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부처님나라서 봉사해요"

청교련 인천지부 자원봉사단 12월 24일 인도행
성지순례·수로공사·문화교류등 프로그램 다채

최근들어 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최초로 국제적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실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오는 12월 24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 15일동안 인도전역을 순례하며 국제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활동을 펼친다.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되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며 불심함양은 물론 기아와 질병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난민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청소년 인성함양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하는 청소년들은 인디안 박물관 견학을 시작으로 15일동안 불교성지순례, 기아난민촌학교 견학 등 본격적인 답사와 봉사활동에 나선다. 특히 빈민보호소인 켈커타 '죽음을 기다리는 집'과 기아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보드가야에서는 방역, 간병, 목욕, 수로공사, 주거개축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또 청소년들은 난민지역인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풍물놀이, 한국전래음악, 인도민속무용배우기, 인도전통음악발표회, 교재만들기,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책가방, 공책, 연필깎기 등의 학용품과 의류를 모아 인도 청소년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미경 국장은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안타까웠다"며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외국의 또래 청소년들의 실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삶과 자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교련 인천지부는 이번 국제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문화교류행사에 동참할 청소년 60명을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32)577-0266

간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진국문화를 배운다는 미명하에 고액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실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사치와 낭비를 조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및 문화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함양에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중근 기자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추대식이 지난 10월25일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다. 이날 서옹스님이 방장으로 추대됐다.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취임

백양사 고불총림의 방장 추대식이 10월 25일 백양사 대웅전앞에서 봉행됐다.

5대종정을 역임한 서옹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하는 이날 행사에는 청하스님(전계대화상)을 비롯한 원로스님, 월주(총무원장) 설정(종회의장) 혜초(태고종 총무원장)스님 등 2백여명의 스님, 서석재(정각회장) 박상규(국민회의 부총재) 추미애(국민회의)의원 등 외빈과 불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불총림 경과보고에 이어 수산스님이 서옹스님에게 방장을 상징하는 불자(拂子)와 법장(法杖)을 봉정했다.

서옹스님 법어

五逆閻雷 一坑埋却
淸風起兮 四海倒流
別別
年年歲歲新世界
朝朝東天一輪紅
喝一喝

오역의 죄인이 천둥소리를 들음이여.
한 구덩이에 묻어버림이라.
청풍이 일어남이여, 사방 바다물이 거꾸로 흐름이로다.
특별히 말하노니
해마다 해마다 새로운 세계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동쪽하늘에 한바퀴 둥근 붉음이로다.
할일할



"모악랜드 반대"

금산사 모악랜드조성사업대책위원회(위원장 도영스님)는 지난 10월27일 금산사경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전북불교총연합회 전북종교인협의회 황토현문화연구회 회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모악랜드조성사업 저지를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사찰의 수도도량을 관광유흥지화 하고 문화유적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며 "모악랜드 조성사업을 철회하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창작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 공연

청룡사 마하합창단 20주년 발표회…19일 국립극장서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마하합창단(단장 정옥녀)은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창작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을 공연한다. 반영규씨(자비의 소리 대표)가 작사하고 김회경씨(수원포교당 합창단 상임지휘자)가 곡을 쓴 '불밭에 피는 꽃'은 〈지장경〉을 국악교성곡으로 작곡한 창작곡으로 전 10장으로 구성돼 있는 대곡으로 이번에 초연된다. 〈본지 89호 13면 참조〉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이 전생에 죄짓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는 과정과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자비심을 내는 모습이 합창, 중창, 독창, 범패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돼 불교음악의 또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원근씨(동국대 교수)가 연출하고 정옥녀씨가 지휘, 중앙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하는 이번 공연에는 3백여 불교합창단과 국악인 김성녀 김영임, 성악가 성기훈 연정숙 이진희씨와 어산스님들이 출연하다.

한편 '불밭에 피는 꽃'은 오는 12월 3일 저녁 7시 수원 경기도 문예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수원포교당 가릉빈가합창단에 의해 또 한차례 공연된다.

청주 BBS 연내 개국 가시화

송신탑설치등 착수…독지가 13억 기부

불교청주방송의 연내 개국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충청지역 일간신문의 모회장이 불교청주방송 건립기금으로 13억여원을 기부할 의사를 밝혀 불교청주방송은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가 연말안에 개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교청주방송은 그동안 개국에 필요한 출자금 20여억원이 예정대로 확보되지 못해 사옥신축이 백지화 되었고 방송시설 장비 발주, 스튜디오 개설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불교청주방송은 사옥신축계획을 변경 지난 8월 청주시 상당구 건축자재 백화점 3개층을 임대 계약해 스튜디오 개설과 송신탑 설치 등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국 개설과 더불어 진행될 인사권의 우위를 두고 그동안 추진위원회(회장 혜광스님)와 약간의 이견이 발생, 현재 이의 원활한 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사불자회소식

청소년 1700명 수계
광주·전남교사불자모임

광주·전남교사불자모임(회장 김진택)이 주관한 제 1회 광주·전남 청소년 불자 1천7백명 합동수계법회가 지난 10월27일 구 상무대 무각사에서 천운스님(향림사 주지)을 계사로 영조스님(광주사암연합회 회장)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제1부 수계법회에서 천운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청소년의 양어깨에 달려있다"며 "부처님의 성스런 계를 받고 진정한 의지처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2부에서는 법명스님의 지도아래 흥겨운 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청소년불자들의 흥을 돋아주었다.

불교학생회 체육대회
대구·경산 교사불자협

사단법인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지부(지부장 지성·대구불교대학장)와 대구·경산 불교지도교사협의회(회장 김형중)가 주최하는 불교학생회 체육대회가 지난 27일 대구북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관음사 보현사 청수사 등 대구지역 각 사찰 학생회 소속 3백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기량을 겨뤘다. 종무라는 것이 일이 많고 바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포살이 아닌가 한다. 종무기관의 소임자는 행정가이기 앞서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심으로 시작한 포살법회이니만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을 비롯 가능한 많은 스님들이 두루 참석하여 지난 1달을 되돌아 보고, 새 달을 청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목탁소리

조계종의 포살법회

고 영 배 〈사진부 기자〉

조계종 개혁종단이 들어서서 많은 일을 추진해 왔다. 특히 종단행정이 정착하는 해가 되는 올해 1월부터 3원장을 비롯 종단의 소임자들이 모여 포살법회를 시작한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종단 내외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부처님 제자로서의 청정 승가상을 새롭게 구현하고 무질서해져 가는 승단을 바로세우기 위한 개혁종단의 원력을 구체화하고 발심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여겨 총무원은 교구본사도 동참시켜 전 종도들이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했으며, 총무원장 스님도 "스님들이 먼저 시작하고 모범을 보여 대중을 선도, 교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불자들은 조계종이 청정 승단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는구나 하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 처음의 취지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례적인 행사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포살법회는 전 대중이 모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인데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의 참석률이 갈수록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의 포살법회에는 3원장 스님중 포교원장 스님만 참석하고 총무원장 및 각 부장 등 주요 소임자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고 30여명의 대중 스님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종무라는 것이 일이 많고 바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포살이 아닌가 한다. 종무기관의 소임자는 행정가이기 앞서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심으로 시작한 포살법회이니만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을 비롯 가능한 많은 스님들이 두루 참석하여 지난 1달을 되돌아 보고, 새 달을 청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종단소식

97년 예산 110억원
진각종 사업계획 확정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10월24일 총인원에서 제 306회 정기중의회를 개최하고 97년도 예산안 1백10억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중점사업으로는 중국 해동심인당 신축 종무원 사택 신축 서원가CD 2차제작 홍보비디오및 책자제작 진각음악제 개최등을 확정했다.

진각종 정기강공회
교화스승 180명 참석

진각종은 지난 10월 22일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락혜통리원장을 비롯한 교화스승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강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공회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여는 진각종'을 주제로 교육원장 성초대정사가 강의했다.

태고종 팔관대재
18일 엑스포 남문광장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오는 18일 오후1시 대전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제3회 전통문화계승 팔관대재를 봉행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집단이기적 편견주의를 극복하고 밝고 건전한 생활환경 선도를 위한 결의법회로 개최될 팔관대재는 1부 기념법요식 2부 팔관대재 3부 영산재 시현 4부 관등법회 순으로 진행된다.

신도간부 연수교육
150명 동참 단합 다짐

태고종 충북종무원(종무원장 각성)은 지난 10월 31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신도간부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는 1백50여 각 사암 신도회장이 참석하여 사찰 신도회 활성화 방안과 조직화를 통한 신도회 강화에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돌후보 불교비하 발언 '파문'

美불교협회·미주불방·LA관음사 등 항의

미국 불교계에서 밥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불교 비하발언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의 발단은 돌 후보가 TV토론과 연설을 통해 '불교인은 가난하고 집없는 부랑자' '불교사찰은 무숙자 집합장소' 등으로 비유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미국 불교협회, 미주불교방송 등의 불교관련 단체들이 지난 23일 LA 관음사(주지 도안스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타나사라(미국불교협회 회장)는 "아시안들인 불교 신자들에 대한 인종편견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신오성씨(한국불교 재가불교대표)는 "위정자들이 사회문제나 경제문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소수계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번 파문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문이 일고있는 돌 후보의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4월 엘고어 부통령(민주당)이 성운스님(국제불광회세계총회 회장)의 초청을 받아 서래사(LA, 중국사찰)에 방문해 '소수민족 이민정책'에 관한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14만불에 달하는 정치헌금을 모금한 것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法堂 부지 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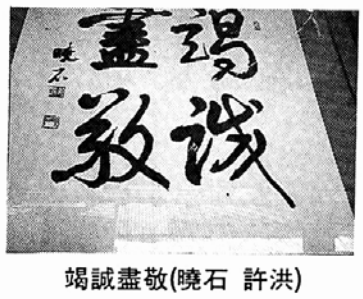
"月下 宗正 큰스님 作品 外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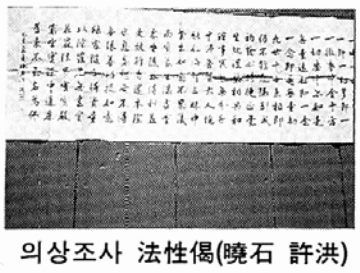
民和年豊(月下 宗正 큰스님)



금강경 8폭 병풍



竭誠盡敬(曉石 許洪)



의상조사 法性偈(曉石 許洪)

작 품 목 록

- 民和年豊(月下 宗正 큰스님)
- 詩 10폭 병풍 (月下 宗正 큰스님)
- 금강경 8폭 병풍
- 竭誠盡敬(曉石 許洪)
- 의상조사 法性偈(曉石 許洪)
- 만다라(티벳스님)

法堂 佛事를 위해 宗正 큰스님 작품외 다수를 판매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용님禪院

부설 : 선관단식 수련원

주소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전화 : 0593)34-1115

현불뉴스

16·17일 방송인 연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6,17일 충남 공주 마곡사에서 방송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KBS MBC SBS 불교방송 불교TV에 근무하는 방송인 80여명이 참석,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예절 및 수행법' 등의 강의와 간담회, 산내 암자참배, 참선 및 108배 등으로 진행된다.

보현사 금강루 상량식

강릉 보현사(주지 도완)는 지난 10월24일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루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인허(오대산 문도회 회주), 삼자(구룡사 조실), 원욱스님(호압사 주지)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 활성 세미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오는 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사찰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찰의 역할과 발전방향,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8천여 영가 왕생기원

부산 삼덕공원 영가합동천도대재 봉행위원회(회장 정각)는 지난 10월27일 삼덕공원묘원에서 제10회 유주무주 합동위령영가천도대재를 봉행했다. 벽파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천도재는 묘원내 지장보살앞 노천법당에서 묘원내에 봉안된 8천여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청소년 지도자와 만남

조계사(주지 현근) 중고등학생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불교청소년 지도자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지도법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이해·포교론, 청소년교육론, 법회계획 운영집전, 상담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언론가족 50여명 동참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10월27일 서울 재동초등학교에서 50여명의 언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불교언론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교양대 전문화 '바람'

염불염습·간병·소비자복지등 세분교육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운영하는 시민대학에 이어 사회복지교양대학, 불교소비자대학이 잇달아 개설되고 있어 교양대학이 전문화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 10월30일 청진동 대명학원 2층에 사회복지교양대학을 설립했다.

복지재단은 올해초 불교간병인협회 인수를 계기로 간병봉사단을 발족하고, 교계 복지시설 및 병원 곳곳에 파견했다.

이에따라 복지재단은 사회복지교양대학을 설립하고 특별과정으로 간병봉사자반을 개설, 본격적인 전문간병인 배출에 나선 것이다.

복지재단은 간병봉사자과정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지도자과정, 장의예식봉사과정 등 특별반을 개설하고 불교사회복지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총지종은 오는 20일 불교소비자대학 문을 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전요원을 배출한다.

불교소비자대학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불교계 최초전문교양대학으로 '불교의 경제윤리와 현대사회' '소비자 관련 법률의 이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등 10개의 강좌를 개강한다.

이에 앞서 비하라(호스피스)교육, 원왕생염불염습교육으로 이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시민대학은 94년 9월에 개강해 총 6백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이밖에도 옥천법음대학(학장 대운)은 영산작법 전문교육기관으로 명성이 높으며,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교양대학의 형태는 아니지만 카운셀링교육을 전문화한 불교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자련 회장 정덕스님은 "사회에서도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의 인기가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불자들의 성향도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는 추세다"며 "전문교양대학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전문인을 배출, 불교의 대사회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제주 약천사 동양최대 법당

제주 약천사(주지 혜인)는 지난 10월24~26일 대웅전 건립 10년 불사를 회향하는 낙성식 및 범종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은 건평이 지하 5백30평 지상 3백24평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천여평의 단일건물로는 동양최대 규모다.

백양사등 모범사찰 종감특위 표창상신

지난 10월에 실시된 조계종 중앙종회 종정감사에서 18교구 본사 백양사, 영월 법흥사, 서울 진관사, 상주 남장사, 석남사, 진주 연화사, 14교구 법련사가 모범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월30일 열린 종감특위 총평가회에서 알려졌다. 이날 8개반으로 이루어진 종감특위는 감사결과, 많은 사찰의 재정관리가 취약하고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행정업무 및 회계처리가 양호하고 가람수호에 진력하는 사찰들이 있어 우수사찰로 추천한다며 종단표창을 상신키로했다.

해인사 주지직대에 선용스님

성법스님 사직…총무원, 3개월내 원만해결 모색

해인사 주지 성법스님이 지난 10월24일 조계종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분으로 진통을 겪고있는 해인사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들어섰다.

해인총림수습대책위(위원장 보광)는 10월25일 "성법스님이 사직서를 총무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30일 종무회의에서 해인사 주지직무대리에 선용스님(종회의원·심우사주지)을 11월4일자로 임명하기로 하고 3개월이내에 해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9일 해인사를 방문,혜암스님(원로회의 의장)을 비롯 고봉스님(해인총림 산중중진회의 의장)등 해인총림 중진스님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복지규정등 조계종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분담금 납부에 관한법 시행령'과 '승려연금 및 보험실시규정'을 10월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은 분담금 부과 기준, 징수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등 총 17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분담금, 특별분담금의 책정 및 책정된 분담금액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담금위원회를 총무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승려연금 및 보험실시 규정'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승려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총10조 부칙1조로 되어있다. 적용대상자는 매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회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하와이 대원사 신도 고국 성지순례

60세이상 12명…봉선·화엄사등 고찰참배

지난 10월 28일 조계사. 고국성지순례에 나선 하와이 대원사 신도 12명은 마지막 성지순례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조계사 대웅전에 그려진 부처님 일대기를 학생들처럼 유심히 바라보았다.

신도들은 고국성지순례를 위해 관음회(회장 이진원성)를 중심으로 1년전부터 만두를 빚어 팔아 2만8천불(약 2천3백만원)을 모았다. 이 가운데 1만2천불은 대원사 불사기금으로 보시했고, 나머지는 여행비로 쓰기로 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했다.

지난 10월 8일 입국, 봉선사 신흥사 화엄사 등 전국의 명산고찰을 순례한 신도들은 숙식을 대부분 사찰에서 해결했다. 서울 도선사의 도서스님이 사찰안내와 숙식을 주선해 주었다.

대전에 불교전문도서관

녹야원추진위 15일 준공 불서 2만권·비디오테잎등 비치

법당도 마련 '청소년 문화공간'

청소년과 대학생불자들을 위한 법회공간과 2만여권의 불교서적을 구비한 불교전문도서관이 오는 15일 대전시 용전동에 준공된다.

대한불교법사회 포교당 녹야원및 불교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권법사)가 10여년전부터 준비해온 이 불사는 5억여원의 재원을 들여 1백6평 부지에 건평 65평의 포교공간이 들어선다.

박법사는 "법회공간을 확보하지못한 청소년 대불련의 수행공간마련과 지역불자들을 위한 생활속의 불교문화공간을 마련하자는 원력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도서관은 팔만대장경등 경전류와 불교문학등 다양한 종류의 불교서적 2만권이 소장돼 지역불자들의 문서포교당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4백여종의 불교비디오 오디오테잎이 소장된 불교전문도서관은 불교도서와 포교자료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지역 최초의 불교문화공간이다. 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강정진법사(서울청정선원장)가 지도하는 참선모임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한편 포교당 녹야원및 불교도서관은 정토사주지 덕진스님이 포교원력으로 대전시 용전동 20-3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박형권법사가 불교도서 전체를 기증했으며 지역불자들의 모연으로 마련됐다.

여천사암련은 지난 10월25일 여천 거북공원에서 흥국사주지 명성스님 석천사주지 진옥스님 장군사주지 성산스님 정재호 여천시장 박한병 여천시의회의장 황치종 등 부처님께 발원하는 의식과 승무 바라춤 나비춤 등을 시연했다. 이번 행사는 임란 후 선조임금이 승군대장 옥형 자운스님에게 위령사업을 하도록하여 의승수군의 본거지인 흥국사에서 3백년간 봉행해오다 일제 침략으로 중단됐던 것을 제11회 여천시민의 날 거북선축제를 맞아 90여년만에 재현된 것이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임란 호국영령 수륙대재 봉행

여천사암련 90여년만에 재현

거북선대축제위원장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란 호국영령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극락영생을 누리도

조계종 내년 살림 138억여원

올보다 34% 증가

내년 조계종의 살림살이가 편성됐다. 조계종 기획실은 97년 중앙종무기관 예산규모를 1백38억 7천9백10만5천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0월29일 중앙종회에 상정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 34.33%가 증가된 것으로 문화재관람료(13억원), 사찰토지처분금(13억원), 중앙분담금(5억원), 교육연수수입(2억5천만원), 이월금(2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원의 종단숙원사업인 불교종합회관건립(30억원), 승가복지사업(9억원)이 추진되며 중앙교부금(4억원)제도가 본격실시된다. 또한 중앙종무기관행정전산화(2억원)와 대사회활동강화를 위해 환경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사 심의기능을 포함하는 성보위원회를 설치해 환경에 어울리는 불사를 추진토록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예산이 금년수준인 13억여원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있는 어린이포교지 〈동쪽나라〉 지원(6천만원),군법당건립지원(4억원), 파라미타지원, 신도등록활성화를 위해 전국순회홍보를 추진한다. 교육원은 금년보다 약4억여원이 증액된 29억8천여만원으로 기초선원 기본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직능별 계층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문사승가대 인가

교육원, 지원방안 마련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0월29일 제2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첫 승가대학으로 운문사승가대학(학장 명성)을 인가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각 승가대학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갖춘 운문사승가대학을 인가하고 자격이 미비된 승가대학은 먼저 가 인가를 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자격여부에 따라 승인키로 했다.

또 승가대학 지원방안으로 학인의 교재, 교수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승가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기자재 설치 공간확보 등의 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교육원은 28일 불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선담(동대 강사) 종호(동대 강사) 팔경스님등 3명을 위촉했다.

한편 교육원이 처음으로 인가한 운문사승가대학은 치문 63명 사집55명 사교56명 대교52명 수의과 2명등 2백28명이 수행 정진하고있다.

마음 돌고도는 시작과 끝

우주의 섭리는 시작이자 끝이요, 끝이자 시작인 한마음이 돌고 도는 그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라서 앞아도 앞은 게 아니고 서도 선 게 아닌 채로 그냥 돌아가고 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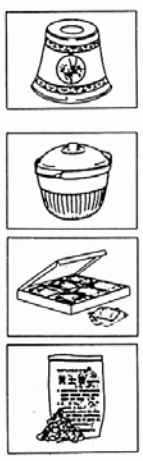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좌욕기 "탄 생"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제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악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성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1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분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서 황토방에서 찔땐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체(陶瓷體)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뿌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 쑥은 약쑥종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4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5 내열탕기에 약숙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방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안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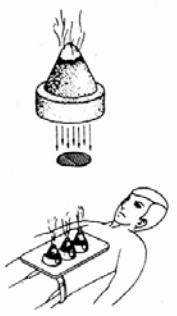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호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빈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자용, 힘증 및 원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생사가 신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군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변비,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법정하십시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법정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찬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태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경,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반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인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상단력이 삼위일체로 합체져 인체조직 과녀의 위점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훵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냉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하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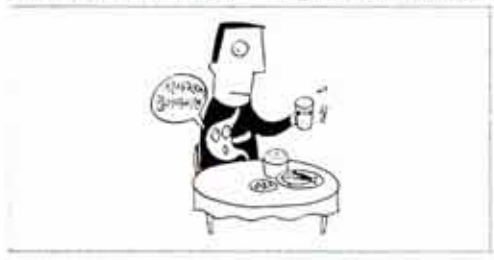
서울(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 715-2062 강북:994-3108 빈포:597-7581 영등포:782-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파천:(02)503-5352 부평:(032)516-9846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동구:253-6446
경남지역: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전주(0652):75-6733
경북지역: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건강백세 ㉘

위(胃) 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가장 많이 앓아 보았던 증상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소화계질환(消化系疾患) 특히 위(胃)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었다. 구태어 이런 조사통계를 빌지 않더라도 소화불량이나 속(胃)이 불편해서 고생했던 경험은 너무 흔해 병이라고 보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본다.

위는 모든 음식물을 입을 통해서 받아들여 주물럭거리면서 분비되는 위액(胃液)이 문이 닫히게 되고 위액이 분비 되면서 뒹혀서 삼켜 내려오는 음식물을 자동적으로 주물럭거려 죽(粥) 모양으로 만든다. 위액은 상당한 강산(強酸) 이어서 어지간한 세균이나 미생물을 막아낼 수 있고 단백질(蛋白質)을 소화시킬 수 있다. 위액이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신선한 음식을 적당량 취하면 거의 탈없이 소화시켜내게 되어 있다. 양식(洋食)에서 음식을 들기전에 '에피타이저'를 들게되면 위점막과 위액분비에 관계되는 신경을 자극하여 분비가 촉진된다고 한다. 우리의 전래(傳來)



위액 분비 세균·미생물 살균 효과
식사 전후 물많이 마시면 소화 장애

골고루 섞여지게 되어 소화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 몸통의 중앙 즉 배, 심장과 대, 소장의 중간에 위치하여 후편으로는 등뼈의 뒷받침을 받아 약간 왼쪽으로 누운듯이 존재한다. 어릴적에는 거의 수직상(垂直狀)으로 서있어 젖이나 우유를 먹인뒤 등을 도닥거려서 트림을 하게 해줘야 밖으로 토해냄을 방지할 수 있다. 위는 왼쪽의 분문(賁門)부와 아래쪽의 저부(底部)및 끝의 십이지장(十二指腸)부와 연결되는 부분인 유문(幽門)으로 나누어서 부른다.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유

식사 습관에 김치국을 한두수저 들고서 시작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식사 직전후에 물을 많이 들게되면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분비와 주물럭 운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격을 받거나 신경을 다른곳에 집중하게 되면 곧바로 위의 기본기능이 위축되어 섭취된 음식물의 불완전 소화로 인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절망은 없다 ①

주부신행담

"세상이 싫어 두자식과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혀꼬부라진 상담전화에 온몸이 경직됐다

여름의 끝자락이 제만치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세월 저편에서 떠오르는 일이 있다.

그것은 단 두차례의 전화 통화로 요약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나에겐 더없이 값지고 푸듯한 감동을 준다. 그 감동은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고 일을 하는 보람이기도하다. 나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민에 빠진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행의 즐거움을 느낀다. 간혹 전화 내담자들의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마저 얼룩질때 한번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진다.

창 하나없는 지하 상담실은 그날도 무거운 고요와 삭막함만 짓들고 있을 뿐이었다. 푸른 하늘이라도 보이면 좋으련만….

무심코 바라본 전화기에서 '따르릉' 벨이 울렸다.

"네 자비의 전화입니다."

그러나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시기가 무척 어려우신 모양이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천천히 말씀 하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 진정이 되시면 말씀 하십시요. 제가 미약하나마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전화 주신 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잠시후 한숨과 함께 약간 혀꼬부라진 소리가 들려 왔다.

"선생님 이 세상이 자겁고 싫어서 두자식과 함께 죽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품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였던 한이라도 풀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순간 나는 온 몸이 경직되고 신경은 칼날같이 곤두섰다.

그 남자 내담자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내담자가 자살직전의 상태로구나. 살아가는 이야기만 해오던 나에게 죽음이라니. 아, 내가 당황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긴장했다.

우선 술부터 깨도록 상담을 계속하면서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침착하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괴로우시면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감자기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절박한 심정 앞에 과연 나의 어줍잖은 인생이 무슨 해답을 들려줄 수 있다는 말인가.

"선생님 저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남자의 사연인즉 "부인은 가출한 지가 석달이 넘었고 아들 둘이 초등학교(4학년·6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다. 그들 부부는 같은 공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아내가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한 후로 싸움이 잦고 부부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손찌검도 자주하고 술도 많이 먹게 되었다. 아내의 바람끼는 잦아들 줄 몰랐고 술로 시작되어 술로 감드는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돌볼 사람없는 아이들은 고아나 다름없어지고 흔적없이 사라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다.

"그럼 내담자께서는 평소에 아내에게 잘못은 없었는지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어요. 살기 싫어 졌을뿐입니다. 자식을 두고 죽자니 누가 거두겠습니까.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는 것만…"

남자의 처절한 흐느낌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필사적인 마음으로 전화기에 매달렸다.

"이 세상에 고통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담자께서도 인생에서 즐겁고 기쁠때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 생각합시다. 마음을 편안하게 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고통을 참지못해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살 용기도 생각해봄직 한데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싫어서 자기목숨과 자식의 목숨까지 끊으려 한다면 그 큰죄를 내세에 가서도 그 업보로 다시 태어나서도 똑같은 지금 상황을 보게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업보이지요. 아내가 집을 나간 것에도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제 잘못도 크지요"

조 순 자
〈대구 자비의전화 교육부장〉



그림 · 이준석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㊿①

♦ Alavaka said: How does one obtain understanding? how does one acquire wealth? how does one obtain fame? how does one bind friends to himself? how does one not grieve passing away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 Bhagavat said: He who believes in the Dhamma of the venerable ones as to the acquisition of Nibbana, will obtain understanding from his desire to hear, being zealous and discerning.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총명하다면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 He who does what is proper, who takes the yoke and exerts himself, will acquire wealth, by truth he will obtain fame, and being charitable he will bind friends to himself.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창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 He who is faithful and leads the life of a householder, and possesses the following four Dhammas virtues, truth, justice dhamma, firmness , and liberality,—such a one indeed does not grieve when passing away.

깊은 신앙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 자제, 견고와 보시의 네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내세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acquisition (n) 획득, 습득
*Venerable ones 부처님을 가리킴
*discerning (a) 명민한, 통찰력 있는
*yoke (n) 멍에, 굴레
*exert (v) 노력하다, 움직이다
*truth (n) 진실, 성실, 정직
*liberality (n) 보시, 주는 것, 관대함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금각사 ①
미시마 유키오 作



그림 · 심민섭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금각사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아버지는 금각사가 황금빛으로 찬연히 빛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금각사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둘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릴적부터 첫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 주지 않는 말더듬이이다. 그 처음 소리가 나의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사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할 때, 그 열쇠로는 쉽게 문이 열린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오로지 침묵만을 가지고 모든 잔학성을 정당화하는 습관이 있다. 습관이란 바로 광소에 나를 짤보는 교사나 같은 반 친구들을 모조리 처형해 버리는 공상을 즐기는 것이다.

나의 어린시절의 기억에는 한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어두운 과거 속에 숨겨져 있다. 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한꺼번에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인생, 관능, 배신, 미움, 사랑, 그 모든 것들과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숭고한 요소들을 나는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숙부 댁에서 두 집 건너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우이코라는 처녀였다. 그녀는 여학교를 나오자 마자 마이즈루 해군병원의 특별지원 간호사가 되었다. 우이코의 몸은 희고, 탄력이 있고, 어둠침침한 그림자 속에 잠겨있는 향긋한 어떤 육(肉)의 모양으로 응결되어 갔던 것이다.

어느 여름날 밤 어린 나는 우이코를 생각하면서 차츰 내가 둘이 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 의지도, 욕망도 모두가 화석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바깥세계는 내 마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또다시 내 둘레에 존재해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우이코 집을 향해 달음질쳤다. 그때였다. 우이코는 어둠 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 갑자기 뛰어나온 나를 보고 몹시 놀랐다.

"무슨 짓이야! 말더듬이인 주제에"

"무슨 짓이야! 말더듬이인 주제에" 그때부터 우이코를 저주했다

우이코는 쏘아붙이듯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침 공기 같은 산뜻한 싱그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볼을 물리면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우이코의 죽음만을 지나게나 빌며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로 몇 달 안가서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남을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마이즈루 해군병원에서 우이코가 사귄 장교가 전쟁에 심증을 느낀 나머지 탈주했다. 헌병은 탈주한 장교를 체포하기 위해 우이코를 찾아가 다그쳤다. 탈주병의 소재를 다그치는 헌병에게 그녀는 강렬하게 거부하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묘한 웃음을 흘리고 이웃마을의 가와라 산의 금각사를 가리켰다.

필자약력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는 일본 도쿄에서 출생했다. 16세 때 이미 소설 〈꽃이 만발한 숲〉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문단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혀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현대문학에서 미시마 유키오는 수려한 문장 구사력과 정의 흥장을 때 없는 완벽한 구성을 소설에서 이뤄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사랑의 갈증〉 〈파도소리〉 〈영령의 소리〉 〈풍요의 바다〉 등이 있다.



最大의 민영제철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最大의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톤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천강의 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最初의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最尖端 기술 국내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열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렉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철강을 만듭니다.

最高의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 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